

소현세자 병증과 치료에 대한 연구

김 종 덕*

-
- | | |
|-----------------------|--------------------|
| 1. 서론 | 분석과 사망에 대한 견해 |
| 2. 심양일기의 치료과정 분석 | 4. 소현세자의 체질에 대한 견해 |
| 3. 1645년 을유동궁일기의 치료과정 | 5. 결론 |
-

초록: 약 8년간의 인질생활을 하고 청나라에서 귀국한 소현세자(1612~1645)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독살설이 주류였다. 하지만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에 나타난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치료가 주로 『東醫寶鑑』(1613)에 근거하였으며, 세자는 산증(痲症)으로 계속 고생하는데, 이는 율화병이 있는 상태에서 한기(寒氣)에 접촉되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상체질의학의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세자는 소양인으로 볼 수 있으며, 소양인체질의 세자가 결흉증과 음허오열로 한열왕래하는 것을 학질로 잘못 이해하여 치료하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소현세자, 심양일기, 을유동궁일기, 산증(痲症), 학질, 소양인, 동의보감, 사상의학

1. 서론

비운의 소현세자는 많은 사람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인물 중의 한 명이다. 세자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귀국 후 갑자기 사망한 사건 등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마침 필자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 사당한의원

아 규장각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장각 소장 중요 자료 역주 사업(1) —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류’의 의학부문을 자문하게 되어 세자일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다. 소현세자의 병증과 죽음과정에 대하여 독살설 등 여러 가지 관점의 해석이 있어왔으나, 본고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한의학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세자의 사망은 독살이 아니라 기력이 쇠한 상태의 한열왕래를 학질로 보고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자의 병력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한의학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병증이라 하여도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당시 소현세자를 치료했던 의원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질병을 보았을까? 소현세자(1612~1645)의 생존시기와 신분을 감안하면 『東醫寶鑑』(1613)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추정된다. 『東醫寶鑑』은 선조와 광해군에 걸쳐 우리나라 국가사업으로 집필된 것으로 동양 최고의 한의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자일기에 나오는 처방을 『東醫寶鑑』 입장에서 살펴보고 당시 의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세자를 치료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후세방을 극복하고 저술된 『東醫壽世保元』(1901)에서 『東醫寶鑑』 치료를 보면 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기에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세자의 체질과 치료의 문제점 등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 특히 세자의 체질이 소양인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역사적 인물의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일에 대한 대처방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세자의 체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소양인의 특성상 나타나는 세자의 행동방식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심양일기의 치료과정 분석

1) 1637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1637년 1월 30일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는 2월 8일 인질로 청나라 군대와 같이 서울을 출발하여, 4월 10일 심양성 동관에 도착하였고, 이어 5월 7일 심양관소로 들어가 생활하게 된다. 그럼 1637년의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 3월 6일: 〈세자의 기후(氣候)가 편치 않으므로 화개산(華蓋散) 1부를 올렸다.〉

화개산(華蓋散)은 폐에 찬바람이 들어 기침하고 상기되며 코가 막히며 목이 잠기는 증상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탕약이다.¹⁾ 당시는 청나라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찬바람에 감기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3월 7일: 〈세자의 환후(患候)가 오래도록 낫지 않으므로, 화개산에 다른 약재를 가미하여 1부를 올렸다.〉

세자의 환후가 오래도록 낫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감기에 걸린 것이 6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감기기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8일: 〈세자에게 또 화개산 1부를 올렸다.〉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 치료를 계속한 것이다.

3월 9일: 〈세자의 환후가 회복되었다.〉

세자의 감기가 3일에 걸친 치료로 치유되었는데, 당시 세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임을 보여준다.

○ 윤4월 10일: 〈세자의 기후(氣候)가 편치 못하여 신하들이 약을 의논하기를 청하자 “이미 땀을 흘렸으니 약을 의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하였다.〉

세자의 기색이 좋지 않았으나 땀을 내었더니 상태가 스스로 좋아졌다는 것은 세자의 정기가 아직은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5월 15일: 〈세자가 곽란을 앓아 평위산(平胃散) 1부를 올렸다. 문안하니 “토사(吐瀉)한 후 차도가 있는 듯하다”라고 답하였다.〉

평위산은 비위가 불화(不和)하여 식욕이 없고 명치 밑이 아프며 헛배가 부르고 구역질과 트림이 나며 신물이 올라올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위장을 보해주는 약이 아니므로 오래 쓸 약은 아니다.²⁾ 세자의 소화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곽란

1) 許浚, 『東醫寶鑑』, 『華蓋散』, “治肺感寒邪 咳嗽上氣 鼻塞聲重 麻黃二錢 赤茯苓 蘇子 陳皮 桑白皮 杏仁 各一錢 甘草灸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入門)”

2) 許浚, 『東醫寶鑑』, 『平胃散』,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脹痛 嘔噦惡心 噯氣吞酸 面黃肌瘦 怠惰嗜臥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反胃等證 取二錢 薑棗湯點服(入門) ○平胃散 決烈耗散之劑 實非補胃之藥 能瀉土氣之敦阜 使之平耳 用之而胃氣和平 則便之不可常用也(丹心)”

에 걸렸으나 평위산을 1번 복용하여 치유된 것을 보면 세자의 비위기능이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 5월 21일: 〈세자가 안질(眼疾)로 침을 맞았다.〉

안질로 침을 맞았다고 하였지만, 어떤 혈인지 알기 어렵다.

○ 9월 13일: 〈의관 유달이 입시하여 침을 놓았다.〉

세자의 증상이 기록되지 않아 왜 침을 맞았는지 알기 어렵다.

1637년의 치료기록은 위와 같고 특이한 것은 없다. 따라서 1637년 당시의 세자의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2) 1638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2월 22일: 〈세자가 안질이 나서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다.〉

2월 26일: 〈안질로 침을 맞았다.〉

이후 27일, 29일, 3월 3일, 5일, 7일, 9일에 걸쳐 세자는 침을 총 7번 맞았다.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한 혈이 기록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1637년에 1번의 치료로 안질이 치유되었으나 1638년에는 7번 치료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2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세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치료기간이 길어졌다. 둘째, 1637년의 안질과 1638년의 안질이 서로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 3월 19일: 〈비로소 세자에게 감기기운이 있는 것을 알았다.〉

3월 20일: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지어 바쳤다.〉

구미강활탕은 사계절을 분문하고 머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쭈시며 열이 나면서도 으슬으슬 춥고 땀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탕약으로 강활충화탕(羌活冲和湯)이라고도 한다.³⁾ 구미강활탕을 사용한 것을 보면 세자에게 골절통(骨節痛)과 오

3) 許浚, 『東醫寶鑑』, 『九味羌活湯』 “不問四時 但有頭痛 骨節痛 發熱惡寒 無汗 脉浮緊 宜用此以代麻黃爲穩當(即奄) ○有汗不得服麻黃 無汗不得服桂枝 若誤服 則其變不可勝言 故立此法使不犯三陽 禁忌乃解表 神方. 羌活 防風 各一錢半 蒼朮 川芎 白芷 黃芩 生地黃 各一錢二分 細辛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生薑三片 大棗二枚 葱白二莖 水煎服(入門) ○一名羌活冲和

한(惡寒)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뒤에 서술되겠지만 감기로 인한 오한증상이 아니라 한기(寒氣)가 침범하여 나타나는 산증의 초기증상으로 보인다.

○ 4월 16일: 〈세자가 객란증세를 보여 문안하였다.〉

일반적으로 객란은 냉물(冷物)을 마시거나, 시장하거나 또는 대노(大怒)하거나, 찬기운이 몸에 스미거나, 승선(乘船) 승차(乘車) 등으로 인해 위기(胃氣)를 동요시켜 손상되면 장위교축(腸胃絞縮)에 심복(心腹)이 동통하고 증한(憎寒) 두통 현훈(眩暈)이 일어나고 손발이 차며, 아울러 구토 설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세자는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긴 객란이 아니라, 축적된 분노와 한기(寒氣) 때문에 나타난 객란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증이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객란으로 보아야 한다.

4월 18일: 〈세자가 산증으로 태충혈에 침을 1대 맞고 대돈혈에 뜸을 5장씩 뒀다.〉

소현세자가 심양에 가기 전에는 산증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약 1년간의 심양생활 후인 1638년 4월 18일 산증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불모생활의 율화병과 체력저하 그리고 추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증(疝症)은 산병(疝病)이라고도 하는데, 소현세자가 심양생활 내내 고생하던 지병이었다. 일반적으로 산증은 아랫배에 병이 있는 것으로 복통이 있으며 대소변을 잘 보지 못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산증을 한기(寒氣)가 뭉쳐서 생긴 것으로 이해하였다.⁴⁾ 그러나 산증은 매우 넓은 개념으로 한산(寒疝), 수산(水疝), 근산(筋疝), 혈산(血疝), 기산(氣疝), 호산(狐疝), 퇴산(癰疝), 폐산(肺疝), 심산(心疝), 비산(脾疝), 간산(肝疝), 산하(疝瘕), 충산(衝疝), 상하복통(上下腹痛), 대하(帶下), 하취(瘕聚), 응치(癰痔), 유뇨(遺尿), 불임(不孕) 등을 위시하여 흉통(胸痛), 후음(後陰) 등도 산증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⁵⁾ 한편 좁은 의미로 산증을 한산(寒疝)으로 보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전음(前陰)은 음모부위에서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임맥(任脈), 독맥(督脈)이 합쳐지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산증과 소복통(小腹痛)은 족궐음간경의

湯(醫鑑)”

4) 許浚, 『東醫寶鑑』, 『疝病之因』, “內經曰 病在小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 ○疝者寒氣結聚之所爲也(內經)”

5) 杜鎬京, 1991, 『東醫腎系學』, 동양의학연구원, 621면.

병으로 보고 있다.⁶⁾ 즉 고환이 아픈 것이나 아랫배가 아픈 것은 모두 간경(肝經)의 병으로 보는데, 그 원인을 한(寒)으로 보고 있다. 산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습열(濕熱)이 간경(肝經)에 오래도록 축적되었다가 한기(寒氣)로 인해 밖에서 묶여지면 통증이 나타난다. 얼음을 밟거나 물을 건너 한기(寒氣)에 접촉되어도 종신토록 산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축적된 열(熱)이 없기 때문이다. 분노하면 간(肝)에서 화(火)가 일어나고,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으면 위(胃)에서 화(火)가 일어나고, 방로(房勞)하면 신(腎)에서 화(火)가 일어난다. 간경(肝經)은 오행으로 목(木)에 속하므로 그 품성이 급속하고 폭발적이어서 한기(寒氣)에 묶여지면 그 통증이 매우 급속하고 격렬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⁸⁾

태충(太衝)혈은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의 원혈(原穴)이자 토혈(土穴)이고, 대돈(大敦)혈은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의 정혈(井穴, 팔다리 끝에서 처음 시작하는 혈)이자 목혈(木穴)로 산증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혈이다.⁹⁾ 따라서 산증은 간경(肝經)의 질환이고 이는 오행으로 보면 목(木)에 속한다. 이에 간경(肝經)의 목혈(木穴)인 대돈혈에 뜸을 뜨고, 토혈(土穴)인 태충혈에 침을 놓은 것이 산증치료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4월 19일: <대돈혈에 뜸을 7장씩 뒀다. 초저녁에 산증증세가 치고 올라오므로 좌측 독음혈에 뜸을 15장 뒀다.>

독음(獨陰)혈은 경외기혈로 제복통(臍腹痛, 배꼽근처가 아픈 증상)이 심하거나 산기가 위로 솟구칠 때 뜸을 뜨는 자리이다.¹⁰⁾ 전날에 비해 대돈혈에 뜸을 더 많이 뜨고 독음혈에 15장의 뜸을 뜬 것을 보면, 세자의 산증이 전날에 비해 더 심해

6) 許浚, 『東醫寶鑑』, 『疝專主肝』, “疝痛 屬足厥陰肝經也 小腹 亦肝經也 故疝痛與小腹痛 同一治法(綱目)”

7) 구체적으로 오추혈(五樞穴)근처로 허리띠가 걸치는 엉치뼈의 앞쪽 튀어 나온 곳의 전방에 해당된다.

8) 許浚, 『東醫寶鑑』, 『疝病之因』, “疝者 辜丸連小腹急痛也(辜陰丸也) 有痛在辜丸者 有在五樞穴邊者 皆足厥陰之經也 或有形 或無形 或有聲如蛙 有形如瓜 自素問以下 皆以爲寒 理固然也 予思之 此病始於濕熱在經 鬱而至久 又感寒氣外束 所以作痛 若只作寒論 恐爲未備 人有踢水涉水 終身不病此者 無熱故也 蓋大怒則火起於肝 醉飽則火起於胃 房勞則火起於腎 火積之久 母能令子虛 濕氣便盛 厥陰屬木 係於肝 爲將軍之官 其性急速 火性又暴 爲寒所束 宜其痛之太暴也”

9) 許浚, 『東醫寶鑑』, 『鍼灸法』, “諸疝 取關元 灸三七壯 大敦灸七壯(得效) ○大敦 主七疝痛(綱目) ○諸疝大法 取大敦 行間 太衝 中封 蠡溝 關門 關元 水道 三陰交 足三里(綱目)”

10) 許浚, 『東醫寶鑑』, “諸疝上衝 氣欲絕 灸獨陰神效(得效) ○臍腹痛甚 灸獨陰 神效(得效)”

졌음을 알 수 있다.

4월 23일: 〈좌우측 기죽마혈에 땀을 5장씩 뒀다.〉

기죽마(騎竹馬)혈은 경외기혈로 등이나 머리에 생긴 종기, 장옹(腸癰), 치통, 풍단종류(風癰腫瘤), 악핵나력(惡核癰瀝), 팔다리 아래쪽으로 나는 옹저정창(癰疽疔瘡) 등을 치료하는 데 쑥뜸으로 보통 3~7장 뜬다. 특히 율화병이 있으며 자주 성을 내는 사람이 기죽마혈에 땀을 21장 뜨면 신표하다고 하였다.¹¹⁾ 따라서, 첫째, 세자에게 종기가 생겼을 가능성과, 둘째, 율화병이 심하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했을 가능성이 있다.

4월 24일 〈기해혈에 7장, 우측 천추혈에 5장 땀을 뜨고, 좌측 삼음교혈에 침을 맞았다.〉

기해(氣海)혈은 원기(原氣)가 모인 단전(丹田)으로 임맥(任脈)에 속하며 원기부족, 산증, 소화불량, 복통 등에 자주 이용하는 혈이고, 천추(天樞)혈은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에 속하며 대장(大腸)의 모혈(募穴)이고, 삼음교(三陰交)혈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에 속하나 간경(肝經)과 신경(腎經)이 모두 합쳐지는 혈로 비뇨생식기질환과 소화기질환에 자주 이용되고 음기(陰氣)가 극도로 소모되어 약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세자는 산증이 심해져 기력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소화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우측 복부가 더 아팠을 가능성이 높다.

4월 25일: 〈우측 대맥혈에 7장, 우측 천추혈에 5장, 기해혈에 3장 땀을 뜨고, 우측 장문혈에 침을 맞았다.〉

대맥(帶脈)혈은 족소양담경(足小陽膽經)에 속하면서 대맥(帶脈)이 서로 만나는 혈로 복통, 설사, 산증, 요통 등에 자주 이용된다. 장문(章門)혈은 족厥陰간경(足厥陰肝經)에 속하면서 족소양담경(足小陽膽經)과 서로 만나는 혈로 비장의 모혈(募穴)이기도 하다. 또한 오장(五臟)의 병을 다스리는 장회(臟會)이기도 하다. 우측 복부와 옆구리에 집중적으로 땀을 뜨고 침을 놓은 것을 보면 세자의 우측복통이 심해져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술한 것을 보인다.

4월 26일: 〈우측 대맥혈에 5장, 우측 천추혈에 5장, 기해혈에 3장 땀을 뜨고, 중완혈과 좌측 중봉혈에 침을 맞았다.〉

중완(中腕)혈은 임맥(任脈)에 속하면서 수태양소장맥(手太陽小腸脈)과 수소양삼초맥(手少陽三焦脈) 그리고 족양명위맥(足陽明胃脈)이 서로 만나는 혈로 위(胃)

11) 李景華, 『廣濟秘笈』, “發背鬱火悲怒之人 多有之 急灸騎竹馬穴三七壯 神效”

의 모혈(募穴)이자 육부(六腑)의 병을 다스리는 부회(腑會)이기도 하다. 중완혈은 비위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이기도 하다. 중봉(中封)혈은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의 금혈(金穴)로 오한발열·산증·요통·족통 등에 이용되는 혈이다. 전 날에 비해 대맥혈에 땀을 7장에서 5장으로 줄이고 장문혈을 자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측복통이 전날보다 줄었으며, 중완혈과 중봉혈에 자침한 것을 보면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고 남은 산증을 치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배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고, 장계를 서울로 보냈다. 장계에는 세자가 배를 먹고 싶어 한다는 내용과 산증이 차도가 없으니 경험이 많은 의관 유후성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세자가 배를 먹고 싶어 한 것으로 보아 세자의 갈증이 심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울화병과 산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7일과 28일: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다.〉

계속되는 침구치료에 세자의 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자 2일간 진찰만 하고 치료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9일: 〈좌우측 기충혈에 5장씩, 기해혈과 우측 천추혈, 우측 대맥혈에 각각 3장씩 땀을 뺀다.〉

기충(氣衝)혈은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에 속하면서 충맥(衝脈)이 시작되는 혈(穴)로 하복통, 산증, 음경통, 음위 등에 사용된다. 이날은 자침하지 않고 땀만 뜬 것으로 보아 세자의 기력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듯하다.

5월 2일: 〈기해혈에 3장, 우측 천추혈에 3장, 우측 기충혈에 5장 땀을 뜨고, 우측 갈비뼈 아래 아시혈(阿是穴)과 좌우측 족삼리혈에 침을 맞았다.〉

아시혈은 압통을 느끼는 곳을 자침하는 것으로 세자의 병증을 호소하는 곳이 바로 우측 갈비뼈 아래임을 알 수 있다. 족삼리(足三里)혈은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토혈(土穴)로 소화계통질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순환, 호흡,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으며 전신을 튼튼하게 하는 요혈(要穴)이다. 침구치료하는 혈의 위치와 횟수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산증이 호전되지 않고 산증에 대한 치료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듯하다.

5월 3일: 〈좌측 태충혈과 내정혈, 좌우측 내관혈, 아랫배 우측 아시혈에 침을 맞았다.〉

내정(內庭)혈은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의 수혈(水穴)에 속하는 혈로 복통, 위염, 소화불량, 이질 등에 사용된다. 내관(內關)혈은 수厥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낙혈(絡穴)로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으로 연결되며 음유(陰維)맥과 서로 만

난다. 주로 급체(急滯)나 정신질환, 결흉증 기울증, 설사 등에 사용한다. 이날은 땀을 뜨지 않고 자침만 하였는데, 세자의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5월 4일: 〈기해혈에 7장, 좌우측 기충혈에 3장씩 땀을 뜨고, 좌우측 신문혈과 좌측 족삼리혈에 침을 맞았다.〉

신문(神門)혈은 수소음심경(手小陰心經)의 원혈(原穴)이자 토혈(土穴)로 심혈관 질환, 신경질환, 소화기능이상 등에 주로 응용되는 혈이다. 세자는 계속되는 산증으로 신경쇠약이 나타나고 소화기능이 떨어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특히 『鍼灸大成』에 의하면 ‘신문혈은 학질과 심번(心煩)을 다스린다. 찬물을 간절히 마시려 하고 오한이 있으면서 따뜻한 곳에 있으려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인후가 건조하고 음식 맛이 떨어지며 가슴이 아프고 자주 한숨 쉬는 것을 치료한다. 갑작갑작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력이 부족한 것을 치료한다. 미친 듯이 비에 잠기다가 미친 듯이 웃고 오한에 몸을 떨고 상기되는 것을 치료한다. 유뇨가 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건망증상을 치료한다.’¹²⁾라고 설명하고 있다.

5월 5일: 〈기해혈에 7장, 좌우측 기충혈에 3장씩 땀을 뜨고, 중완혈에 침을 맞았다.〉

중완혈을 다시 자침한 것은 신경쇠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소화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5월 6일: 〈기해혈에 7장, 기충혈에 5장씩 땀을 땀다. 세자가 낮에 신하들을 접견하다가 책상에 기대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니 신하들이 차마 우러러 볼 수가 없었다.〉

기충혈을 한쪽만 땀을 뜬 것인지, 양쪽 모두 뜬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계속된 치료방향과 같이 좌우 양쪽의 기충혈에 땀을 뜬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산증으로 고생을 하고 치료가 길어지자 세자는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가 된다.

5월 7일: 〈이질(痢疾) 증세가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소화기능이 떨어진 것을 반영하듯 이질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뭉쳤던 속이 풀리는 과정에서 설사가 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5월 8일: 〈오후에 세자가 기의 흐름이 막혀 딸꾹질이 나타나 신하들이 당황하

12) 楊繼洲, 『鍼灸大成』, 『神門』, “針三分 留七呼 灸七壯 主瘧心煩 甚欲得冷飲 惡寒則欲處溫中 咽乾不嗜食 心通數嚔 恐悸 少氣不足 手臂寒 面赤喜笑 掌中熱而腕 目黃脇痛 喘逆身熱 狂悲 狂笑 嘔血吐血 振寒上氣 遺尿失音 心性痴呆 健忘 心積伏梁 大小人五癰”

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을 받고 좌우측 열결혈에 침을 맞으니 기의 흐름이 원만해졌다.)

열결(列缺)혈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낙혈(絡穴)로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이 별도로 지나가며 임맥(任脈)과 통하는 혈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지염, 후비(喉痺), 천해상기(喘欬上氣), 인후종통, 해수한담(咳嗽寒痰) 등에 응용한다. 기침이나 천식을 할 때, 딸꾹질하는 것을 기가 위로 솟구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천해상기(喘欬上氣)와 딸꾹질 모두 같은 범주로 놓아 이러한 치료를 한 것이다. 이날은 의관을 2번씩 불러 진찰을 받았다.

5월 9일: 〈이질증세가 조금씩 나을 기미를 보였다.〉

산증으로 고생하던 세자의 속이 풀리면서 호전되는 기전으로 이해된다.

5월 10일: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다.〉

이날 장계를 보냈는데 세자의 산증(疝症)이 한 달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이후 11일, 12일, 13일까지 4일간 세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의관의 진찰만 받았다. 산증이 조금씩 호전되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5월 14일: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다. 저녁에 뱃속이 불편한 증세가 있어서 의관을 다시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다.〉

이날은 의관을 2번씩 불러 진찰을 받았다. 하지만 산증이 계속 호전되는 상황이다.

5월 15일: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을 받았다.〉

이후 16일, 17일에도 역시 치료는 없고 진찰만 받았다.

5월 18일: 〈문안선전관 이경빈이 돌아갔다. 그 편에 병이 회복되었다는 장계를 보냈다.〉

세자는 산증으로 1달 정도 치료받아 많이 좋아진 셈이지만 뱃속에 불편한 증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산증의 뿌리가 다 뽑히지는 않았다.

다음의 〈표 1〉에 보이듯이 세자의 치료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뜸자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해혈과 천추혈이고 중반 이후에는 기해혈과 기충혈임을 알 수 있다. 자침은 그때그때의 통증과 증상을 고려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1638년의 세자 산증치료

월/일	증상	자침	뜸
4/18	산증	태충	대돈 5장
4/19	산기가 상충됨		독음(좌) 15장
4/23	의관치료시작		기죽마 5장
4/24		삼음교(좌)	기해 7장, 천추(우) 5장
4/25		장문(우)	기해 3장, 천추(우) 5장, 대맥(우) 7장
4/26		중완, 중봉(좌)	기해 3장, 천추(우) 5장, 대맥(우) 5장
4/29			기해 3장, 천추(우) 3장, 대맥(우) 3장, 기충(좌우) 5장
5/2		아시혈(右脇下), 족삼리(좌우)	기해 3장, 천추(우) 3장, 기충(우) 5장
5/3		아시혈(小腹右邊), 태충(좌), 내정(좌), 내관(좌우)	
5/4		신문(좌우), 족삼리(좌)	기해 7장, 기충(좌우) 3장
5/5		중완	기해 7장, 기충(좌우) 3장
5/6	隱几而歔唏涕出		기해 7장, 기충(좌우) ¹³⁾ 5장
5/7	이질증상		
5/8	氣塞發飢	열결	
5/9	이질증세 호전		
5/14	腹中不安之候		
5/17	문안 중단		

○ 6월 11일: 〈유후성을 불러들여 좌우측 장문혈, 태충혈, 족임읍혈, 내정혈, 삼음교혈에 침을 맞았다.〉

유후성은 세자를 치료하기 위해 심양에 6월 1일 도착하였으나 7일해야 심양관 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후성은 11일 세자를 치료한 다음 6월 21일에 귀국하였다. 유후성은 세자가 산증으로 고생하던 4월 26일에 서울로 보낸 장계로 인해 심양에 왔으나, 이미 세자의 산증이 치료된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의례적으로 하

13) 원문에는 기충혈의 좌우에 모두 뜸을 뜬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치료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좌우에 뜸을 뜬 것으로 보았다.

루만 치료한 것이다.

○ 6월 29일: 〈세자의 오른쪽 다리에 습종(濕腫)이 생겨 침을 맞았다.〉

습종(濕腫)은 부종의 하나로 부은 곳을 누르면 손가락 자리가 나며, 허리 아래로 무겁고 다리가 팽팽하게 붓는다. 자침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느 혈인지 기술되지 않아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알기 어렵다.

○ 8월 4일: 〈청나라 황제가 서행하는데 세자도 동행하기를 바라지만, 세자가 답하기를 “감히 명령을 좇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몸에 병이 많아 그것이 걱정일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세자가 동행하기 싫어 핑계 댈 수도 있지만 청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청병한 것은 아닌 듯하다. 세자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 11월 7일 〈세자가 불안한 증세를 보여 탄일망궐례를 쉬었다.〉

세자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증상이 없어 그 상태를 알기 어렵다.

3) 1639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1월 30일: 〈청나라 황제가 서행하는데 세자도 동행하기를 바라지만, 세자가 말을 타는데 익숙하지 않고 평소 산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황제가 알고 있다고 말한다.〉

세자가 산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청나라 조정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심하다. 산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말을 타면 고환에 직접 압박이 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 따라서 세자는 말을 타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월 16일: 〈작년 여름내 앓던 산증과 갈비뼈 아래의 냉괴(冷塊)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 올 봄에 다시 땀을 뜨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의관들이 일찍이 상의하여 혈(點)에 점찍을 날을 택하여 단자(單子)를 올리니 “그대로 하라”라고 하령하였다.〉

세자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산증으로 고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본격적인 치료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월 17일: 〈기해혈에 땀을 21장 땀다.〉

1년 전의 산증치료방법과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 즉 전에는 기해혈에 최대 7장의 땀을 땀으나 이번에는 처음부터 7장의 3배인 21장을 뜨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의학에서 땀을 뜰 때에는 홀수(기수)로 하는데, 3장, 5장, 7장 등을 뜨고, 그 다음에는 그의 배수인 $7 \times 2 = 14$ 장, $7 \times 3 = 21$ 장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 21장을 뜨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갑자기 땀을 많이 뜨게 되어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3월 18일: 〈“어제 땀을 뜨고 거동이 편치 않으신데 오늘 계속 땀 뜨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세자에게 아뢰니 “내일 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신하가 보기에다 땀을 뜬 다음 세자의 거동이 편치 않고, 세자 본인도 너무 많이 땀을 땀음을 자인하고 있다.

3월 20일: 〈좌우측 장문혈에 각각 땀을 25장씩 땀다.〉

그동안의 치료와 다르다. 장문(章門)혈은 옆구리 제11늑골 끝에서 약 1cm 정도 앞에 있는 혈로 그동안 우측만 땀을 땀다. 서울에서 온 유후성이 1638년 6월 11일 좌우측의 장문혈에 침을 놓은 적은 있으나, 좌우측 장문혈에 땀을 각각 25장씩이나 뜬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세자의 산증이 우측복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좌측복부에도 산증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증의 범위가 더 넓어짐에 따라 이를 막으려는 듯 무려 50장의 땀을 뜬 것으로 보인다.

3월 21일: 〈좌우측 장문혈에 각각 6장, 중완혈에 21장씩 땀을 땀다.〉

장문혈에 뜨는 땀의 횟수가 전날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6장을 뜬 것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땀을 뜰 때에는 홀수(기수)로 뜨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에서는 짝수(우수)로 6장 땀다. 이는 중완혈에 21장의 땀을 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문혈의 땀을 줄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전날 장문혈에 너무 많은 땀을 떠서 일부러 짝수(우수)의 땀을 뜬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산증이 호전되어 땀을 적게 뜬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3월 24일: 〈중완혈에 땀을 30장 땀다.〉

중완혈에 30장의 땀을 뜬 것도 적은 양은 아니다. 산증의 뿌리를 뽑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월 26일: 〈좌우측 족삼리혈에 7장씩, 좌우측 절골혈에 5장씩 땀을 땀다.〉

절골(絶骨)혈은 족소양담경에 속하는 현종(懸鐘)혈의 이명으로 팔회(八會)혈의

수회(髓會)이므로 골수, 척수, 뇌수 등의 수병(髓病)에 사용된다. 질골혈에 땀을 새로 뜬 까닭은 골수까지 들어간 한기(寒氣)를 몰아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복부에 더 이상 땀을 뜨지 않고 다리에만 뜬 것은 산증이 이미 호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날 이후로 산증에 대한 치료를 당분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증이 전에 비해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 5월 7일: 〈종신이 세자에게 산증이 있어서 찬 데서 자서는 안 된다는 뜻을 해당 관원에게 호소하였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세자의 산증이 호전되었으나 신하가 세자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 산증의 뿌리가 다 뽑아진 것이 아니라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 6월 13일: 〈본원(本院)이 서연(書筵)에 대하여 여쭙니 “요즘 몸이 편치 않아 잠시 쉬겠다”라고 답하였다. 이어 의관에게 하령(下令)하기를 “요사이 더위 먹은 증세가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음식 맛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의관들과 상의하여 약을 들이라”라고 하였다. 이에 의관이 볶은 백작약 1돈, 진피, 볶은 신국(神麴) 7푼을 가미한 유령탕(薤苓湯) 2첩을 지어 올렸다.〉

유령탕은 여름철에 설사를 앓다가 이질(痢疾)로 변하려고 할 때 사용하거나 번갈고 소변이 적색이 되고 물설사를 할 때 사용한다.¹⁴⁾ 소양인 약재로 분류되는 택사(澤瀉)가 군약이며, 저령(猪苓), 적복령(赤茯苓), 황련(黃連)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피(陳皮)와 신국(神麴)을 첨가한 까닭은 세자에게 식체(食滯)가 있어 이를 풀어주기 위함이다.

6월 14일: 〈“어제 들인 약 1첩을 복용하고 이미 차도가 있는 것 같으니, 문안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

더위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설사가 동반된 증상에 이수(利水)시키는 유령탕을 복용했더니 효험을 본 것으로 보인다. 유령탕 1첩에 증상이 호전된 것을 보면 세자에게 유령탕이 잘 맞는 처방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더위 먹은 것이 약했을 가

14) 許浚, 『東醫寶鑑』, 『暑泄』, “煩渴尿赤 暴瀉如水 宜薤苓湯 加白芍藥 車前子 或桂苓甘露飲(入門)”

許浚, 『東醫寶鑑』, 『薤苓湯』, “治夏月泄瀉 欲成痢 澤瀉一錢二分 猪苓 赤茯苓 白朮 香薷 黃連 薑汁炒 白朮豆 厚朴製 各一錢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水煎服(集略)”

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위 먹었을 때 1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세자에게 유령탕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 9월 4일: <“옆드려 듣건대 이질이 있다 하시는데, 밖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여 이제야 문안드립니다”라고 아뢰니 “이미 차도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세자는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이질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병을 밖으로 들어내지 않는 것은 세자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신하들이 걱정하는 것을 배려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많다.

○ 9월 22일: <“용안에 화색이 없으시니 신 등은 걱정됩니다. 만약 편찮은 증세가 있으시면 그 증세를 적어주시어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구구한 아랫사람의 마음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신하가 아뢰자, 세자는 “아침에 좀 추워 움츠러드는 증세가 있었는데, 해질 무렵 뒤로는 덜한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안색이 좋지 않으며, 아침에 한기를 느끼고 오후에 한기가 줄어들드는 병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증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한기가 들어와 한열왕래 증상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9월 29일: <“삼가 편찮으신 기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망배례 때 새벽을 무릅쓰고 예를 행하셔야 하니 혹 더 상하실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세자가 “쉬겠다”라고 답하였다.>

신하들이 세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건의를 올리자 이를 허락한 것은 세자 본인도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다음의 <표 2>에 보이듯이 1639년의 산증치료는 기해혈 장문혈 중완혈 등에 뜸을 많이 뒀다는 특징이 있다. 산증의 치료에 목표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뜸을 뜬 것으로 보인다.

〈표 2〉 1639년 세자의 산증치료

월/일	증상	처방	뜸치료
3/16	갈비뼈아래의 냉괴 호소		
3/17			기해 21장
3/20			장문(좌우) 25장
3/21			장문(좌우) 6장, 중완 21장
3/24			중완 30장
3/26			족삼리(좌우) 7장, 절골(좌우) 5장
5/7	산증		
6/13	暑病	유령탕 2첩	
9/4	이질		
9/22	아침에 寒縮		

4) 1640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1월 22일: 〈저녁에 승언색이 전하기를 “세자 저하께서 붉고 딱딱한 돌기가 하부(下部) 근처에 작게 나타나므로 경락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좌우측의 삼음교혈과 태충혈에 각각 침을 놓았다.〉

하부는 음부근처로 보인다. 붉고 딱딱한 돌기는 산증의 일종으로 보아 삼음교혈과 태충혈을 취한 듯하다.

1월 23일: 〈“병이 이미 조금 나았으니 문안하지 말라”라고 세자가 답하였다.〉

22일의 치료가 효험을 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돌기의 상태가 처음부터 미미했을 수도 있다.

○ 2월 26일: 〈세자의 목에 약간의 통증이 생겼다.〉

세자는 1640년 2월 13일 심양을 출발하여 3월 7일 서울에 도착한다. 그리고 잠시 서울에서 지내다가 5월 3일 심양에 도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독으로 목이 아픈 것으로 보인다.

2월 29일: 〈“목의 통증이 이미 사라져 나았다”라고 세자가 답하였다.〉

별도의 치료없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그리 큰 질환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마 이때는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가는 길이었으므로 만감이 교차되

있을 것이다.

○ 4월 16일: 〈세자가 몸이 편찮아 그대로 정주에 머물렀다.〉

서울에 잠시 있다가 다시 청나라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세자는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을 것이다.

4월 18일: 〈세자가 몸이 편찮아 그대로 머물고자 하였으나 청나라 장수가 허락하지 않았다.〉

인질로서의 비애감을 세자는 심히 느꼈을 것이다.

4월 29일: 〈“땀을 낸 뒤로는 기후가 평안하다”〉

땀을 낸 후에 몸이 편안해진 것으로 보아 청나라로 이동 중인 세자는 한기(寒氣)로 인한 산증 또는 감기기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땀을 낸 것으로 병증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정기가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 7월 18일: 〈세자가 귀가 아픈 증세가 약간 있어서 신하들이 문안하니 “그리 대단하지는 않다”라고 답하였다.〉

7월 19일: 〈“이미 나왔으니 문안하지 말라”라고 세자가 답하였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치유된 것을 보면 그리 심한 이통(耳痛)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9월 12일: 〈세자가 목이 타고 마르는 증세가 있고, 오른쪽에 마목(麻木)증상이 있었다. 퇴열탕(退熱湯)을 조제하여 들었다.〉

퇴열탕은 체표(體表)에 허열(虛熱)이 있으며 밤에 더욱 심해지는 증상을 치료할 때 쓴다.¹⁵⁾ 따라서 세자의 갈증은 허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열은 음허(陰虛)증상으로 볼 수 있다.

9월 13일: 〈“대단하지 않으니 문안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

9월 15일: 〈세자의 옥후(玉候)가 미령하여 망전례를 쉬었다.〉

세자의 목소리가 편치 않다는 것은 몸이 매우 피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자에게 퇴열탕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5) 許浚, 『東醫寶鑑』, 『退熱湯』 “治表中虛熱 遇夜則甚 黃芪一錢三分 柴胡一錢 生甘草 黃連酒炒 黃芩 赤芍藥 地骨皮 生地黃 蒼朮 各七分 當歸身 升麻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東垣)”

9월 19일: 〈가입퇴열탕 5첩을 또 조제하여 들었다.〉

그동안 사용한 퇴열탕이 별 효과가 없자 기존의 퇴열탕에 다른 약재를 가미하여 올렸다. 하지만 어떠한 약재를 더 넣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9월 24일: 〈세자의 옥후가 편치 않아 다시 약을 의논한 뒤 가입사물탕 3첩을 조제하여 들었다.〉

그동안 퇴열탕을 사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이번에는 가입사물탕으로 바꾸었다. 가입사물탕은 혈병(血病)에 주로 사용되는 사물탕에 약재를 가미한 것이다. 가입사물탕의 종류가 매우 많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방을 사용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¹⁶⁾ 여기에서는 길경 감초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황백 지모 천화분 등을 달이고 여기에 죽력(竹瀝)을 넣어 복용하는 『東醫寶鑑』의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일 가능성이 높다. 이 처방은 허화(虛火)와 후비(喉痺) 후통(喉痛) 후창(喉瘡) 등을 치료하는데 화(火)를 가장 잘 내린다고 한다.¹⁷⁾ 따라서 세자의 마목증상을 허화로 보아 혈(血)을 보하는 가미사물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 26일: 〈가입사물탕 7첩을 또 조제하여 들었다.〉

24일에는 3첩을 처방하였으나 이번에는 7첩을 처방하였다. 7첩 처방한 것을 보면 의원들이 치료의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10월 1일: 〈병환을 조섭하는 중이라 망전례를 쉬었다.〉

아직 인후통이 모두 치료된 것은 아니다.

10월 19일: 〈세자에게 감기기운이 조금 있어서 가감충화탕 3첩을 조제하여 들었다.〉

16)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血虛 眩暈卒倒 不可艾灸 驚哭抖動 動則乘虛而死矣. 當歸 川芎 白芍藥 生地黃 熟地黃 黃芪 人參 白朮 陳皮 白茯苓 荊芥穗 甘草 各七分 右剉 棗二枚 烏梅一箇 煎服(回春)”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血虛陰火 上衝頭痛. 當歸 川芎 生乾地黃酒炒 黃栢酒炒 知母酒炒 黃芩酒炒 黃連酒炒 蔓荊子 梔子炒 各七分 右剉作一貼 水煎服(回春)”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濕熱 兩脚痿軟無力. 熟地黃二錢 當歸身 麥門冬 黃栢 蒼朮 各一錢 白芍藥 川芎 杜沖 各七分 人參 黃連 各五分 知母 牛膝 各三分 五味子九粒 右剉作一貼 水煎 空心服(正傳)”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經斷後多年 忽然再行 遂成崩漏 腹痛寒熱 四物湯四錢 加人參 吳茱萸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得效)”

17)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虛火 喉痺喉痛喉瘡 最能降火. 桔梗 甘草 各一錢半 熟地黃 白芍藥 各七分 當歸 川芎 黃栢蜜水炒 知母 天花粉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 入竹瀝一鍾服(回春)”

가감충화탕(加減沖和湯)은 방풍충화탕(防風沖和湯)이라고도 하는데, 봄 여름 가을에 풍한감모로 머리가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며, 저질로 땀이 나고 오한이 나며, 맥이 부완(浮緩)한 것을 치료한다. 이 처방은 강활 방풍 등이 주된 약재인데, 소양인에게 주로 사용된다.¹⁸⁾ 세자의 계속되는 병증을 가감충화탕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표 3〉 1640년 세자 치료

월/일	증상	자침	
1/22	有紅核 微見於下部近處	삼음교혈, 태충혈	
2/26	목에 약간의 통증		
4/16	氣候未寧		
4/18	氣候未寧		
4/29	氣候未寧, 땀을 낸 다음 편안해짐		
7/18	微有耳痛之候		
9/12	목이 마름, 우측 마목증상		퇴열탕
9/15	玉候未寧		
9/19			가입퇴열탕
9/24	玉候未寧		가입사물탕 3첩
9/26			가입사물탕 7첩
10/1	調攝中		
10/19	감기기운		가감충화탕 3첩

5) 1641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1월 24일: 〈세자에게 진작부터 마비 증세가 있었으나 이제야 침을 맞고자 하였다. 손의 좌우측 외관혈 후계혈 내관혈 열결혈과, 발의 좌우측 족임읍혈 내정혈 양교혈 공손혈, 배의 중완혈에 침을 맞았다.〉

외관(外關)혈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낙혈(絡穴)로 수궤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이 별도로 지나가고 양유맥(陽維脈)과 서로 만난다. 후계(後谿)혈은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목혈(木穴)로 독맥(督脈)과 서로 만난다. 족임읍혈

18) 許浚, 『東醫寶鑑』, 『防風沖和湯』, “治春夏秋感冒風寒 頭痛身熱 自汗惡寒 脉浮緩. 羌活 防風 各一錢半 白朮 川芎 白芷 生地黃 黃芩 各一錢 細辛 甘草 各五分 右剉入薑三葱三 煎服 ○一名加減沖和湯”

(足臨泣)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목혈(木穴)로 대맥(帶脈)과 서로 만난다. 양교(陽蹻)혈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신맥(申脈)혈의 이명으로 양교맥(陽蹻脈)과 서로 만난다. 공손(公孫)혈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낙혈(絡穴)로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이 별도로 지나가고 충맥(衝脈)과 서로 만난다.

이날 맞은 혈은 중완혈과 내정혈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자리가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에 속한다. 즉 팔맥교회혈에서 조해(照海)혈만 빼고 취혈하였지만 27일에서는 조해(照海)혈이 첨가된다.

〈표 4〉 八脈交會穴과 치료부위

경락	八脈交會穴	奇經八脈	치료부위
足太陰脾經	公孫	衝脈	心, 胸, 胃(內臟)
手厥陰心包經	內關	陰維脈	
手太陽小腸經	後谿	督脈	項部, 肩胛部, 耳, 內眼角(外經)
足太陽膀胱經	申脈 (陽蹻)	陽蹻脈	
足少陽膽經	足臨泣	帶脈	項部, 肩胛部, 頰, 耳, 外眼角(外經)
手少陽三焦經	外關	陽維脈	
手太陽小腸經	列缺	任脈	咽喉, 胸膈(內臟)
足少陰腎經	照海 (陰蹻)	陰蹻脈	

1월 27일: 〈음교(陰蹻)혈을 추가하고 중완혈은 빼고 나머지 혈은 전과 같이 하였다.〉

음교(陰蹻)혈은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조해(照海)혈의 이명으로 음교맥(陰蹻脈)과 서로 통한다. 따라서 이날은 팔맥교회혈 전부와 내정혈에 침을 맞은 것이다.

2월 3일: 〈손의 좌우측 외관혈 후계혈 내관혈, 발의 좌우측 내정혈 족임음혈 공손혈, 배의 중완혈에 침을 맞았다.〉

27일에 비하여 자침한 혈이 줄어들었다. 마비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자침한 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월 6일: 〈손의 좌우측 외관혈 내관혈 열결혈, 발의 좌우측 족임음혈 태충혈 음교혈 족삼리혈에 침을 맞았다. 이후에 잠시 설사를 하고 속이 불편한 징후가

있어서 평위산(平胃散)에 백작약 적복령 각 1돈, 청피 지각 신국(초) 각 7푼을 더하여 2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속이 불편하여 1637년 5월 15일 객란에 사용하였던 평위산에 가미하였다. 4년 전에는 평위산을 사용하여 객란이 쉽게 치료되었지만, 이번에는 치료효과가 더뎠을 알수 있다. 따라서 세자의 건강이 전에 비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4년 전의 증상과 단순 비교할 수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2월 9일: <설사증세가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여 뱃속이 더욱 불편하여 수라 드시기를 싫어하므로 다시 약을 의논하여 사령산(四苓散)에 갈아 볶은 차전자 2돈, 신국(초), 연육(蓮肉) 각 1돈씩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산증(疝症)을 아울러 치료하였다.>

사령산은 오령산(五苓散)에서 육계(肉桂)를 제거한 약으로 택사 2돈반, 적복령 백출 저령 각 1돈반 등으로 구성되었다. 오령산은 태양증(太陽證)이 리(裏)로 들어가 번갈아 되면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에 주로 사용한다.¹⁹⁾ 이 중 택사 복령 저령 차전자 등이 모두 소양인 약재로 이수(利水)작용이 강하다. 따라서 세자가 복용한 한약은 백출과 신국 그리고 연육을 제외한 모은 약이 소양인에게 사용하는 약재이다. 오령산은 물을 먹어도 토하는 수역(水逆)에도 사용되는데, 결흉병(結胸病)으로 가슴을 손대지 못하고 조갈(燥渴)과 섬어(譫語)가 있으면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을 사용해야한다고 사상의학에서는 본다.

2월 11일 <“병이 대단치 않으니 문안하지 말라”>

사령산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 2월 17일: <아침에 “어제 밤부터 감기가 들어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기침과 천식이 있다”라고 하였다.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에 상백피 행인 각 1돈, 편금(초) 5푼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인삼패독산은 상한시기(傷寒時氣)로 인한 발열(發熱) 두통 항강(項強) 지체번동(肢體煩疼) 해수(咳嗽) 비색(鼻塞) 성중(聲重) 등을 치료한다. 여기에 형개와 방풍을 넣으면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이 되고, 이 처방이 소양인의 형방패독산으로

19) 許浚, 『東醫寶鑑』, 『五苓散』 “治太陽證入裏 煩渴而小便不利 澤瀉二錢半 赤茯苓 白朮 猪苓 各一錢半 肉桂五分 右爲末 每二錢 白湯調下 或剉作一貼 水煎服 ○傷寒汗後 亡津 但渴欲飲水者 邪在裏也 然上焦虛燥 或飲水不散 而反吐出 爲水逆證 或飲水雖多 而小便不利者 皆裏熱未實 不能消水故爾 五苓散的藥也(入門)”

변형된다.²⁰⁾ 즉 일부 약재를 빼고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양인의 소양병(少陽病)에 많이 응용되는 처방이다.

2월 18일: <“조제하여 들인 약을 어제 낮에 한 번 복용하고, 또 밤 2경에 다시 복용했더니 자못 효험을 보아 몸이 편안해졌다. 이제 또 달여 복용하겠다”라고 세자가 답하였다. 오후에 의관이 문안하니 “여러 증세가 차도가 있으나 다만 기침이 나고 숨이 찰 때에는 머리가 은근히 아프고 가슴이 불안하며 또 오한기운이 있고, 토할 듯한 기분이 들고 갑자기 음식이 싫어지는 증세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소시호탕(小柴胡湯)에 황련과 치자, 그리고 생강즙에 담갔다가 볶은 지각(枳殼) 각 1돈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소시호탕은 소양병(少陽病)의 반표반리(半表半裏)증으로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을 치료하고, 속의 열을 내리고 겉에 있는 사기[外邪]를 풀어 준다.²¹⁾ 하지만 사상의학의 입장에서는 이 증상에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월 19일: <“알았다. 이미 조금씩 회복되어 가니 약을 계속해서 올리라”>

2월 20일: <“이미 병이 나았으니 문안하지 말라”>

세자의 소양병(少陽病)이 인삼패독산 소시호탕을 사용하여 치료된 것이다.

○ 3월 7일: <의관들이 세자의 마비 증세에는 침이 효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쑥으로 뜸을 떼서 후환을 막아야 한다고 논하였다. 그래서 뜸뜸 혈을 의논하여 손의 좌우측 곡지혈, 발의 좌우측 족삼리혈과 절골혈에 각각 뜸을 7장씩 떴다.>

곡지(曲池)혈은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토혈(土穴)이다. 여기에 언급된 곡지혈 족삼리혈 절골혈(현중혈) 3개의 혈은 모두 중풍칠처혈(中風七處穴)에 속한다. 따라서 마비증상을 넓은 의미에서 중풍의 전조증으로 보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취혈한 듯하다. 그리고 1~2월 마비에 대하여 침치료를 했

20) 許浚, 『東醫寶鑑』, 『人蔘敗毒散』, “治傷寒時氣 發熱頭痛 項強 肢體煩疼 及傷風咳嗽 鼻塞聲重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川芎 赤茯苓 人蔘 甘草 各一錢 剉作一貼 入薑三片 薄荷少許 水煎服(醫鑒). (중략) 加荊芥穗 防風等分名曰 荊防敗毒散”

21) 許浚, 『東醫寶鑑』, 『小柴胡湯』, “治少陽病 半表半裏 往來寒熱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王道也 柴胡三錢 黃芩二錢 人蔘 半夏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入門)”

음에도 불구하고 마비증상이 완치된 것은 아니고 일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땀을 뜬 것으로도 해석된다.

○ 4월 8일: 〈어깨뼈가 당기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문안하니 “병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의관이 들어가 진찰한 후 약을 의논하고 침 놓을 자리를 의논하여 들었다. 침은 날씨가 좋지 않아 그만두고 약은 강활승습탕(羌活勝濕湯)에 지각, 형개수, 술에 담갔다가 볶은 황금 각 7푼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강활승습탕은 태양경(太陽經)이 한습에 상하여 목덜미가 뻣뻣하거나 빠질 것 같고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강활과 독활이 2돈씩 사용된 처방이다.²²⁾ 한기가 태양경에 들어와 생긴 것으로 이를 풀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4월 10일: 〈증세가 나아가니 문안하지 말라〉

강활승습탕을 복용하고 견비통이 쉽게 치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 5월 20일: 〈의관에게 하령하기를 “더위를 견딜 수 없고 자주 갈증을 느껴 계속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였다. 쓴 약을 올리기 어려워 생맥산을 조제하여 올렸다.〉

생맥산(生脉散)은 여름철에 기력이 부족하고 식욕부진이 있으면 갈증이 나고 식은땀을 흘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방이다.²³⁾ 세자의 화기가 계속 뜨는 것으로 해석된다.

○ 6월 4일: 〈낮에 의관에게 하령하여 “뱃속이 불편한 증세가 있으니 약을 의논하여 바치라”고 하였다. 평위산에 백작약(초) 적복령 각 1돈, 지각 길경 향유 각 7푼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뱃속의 불편한 증세는 식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위산을 처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2) 許浚, 『東醫寶鑑』, 『羌活勝濕湯』 “治太陽經中寒濕 項強 或似拔 不得回顧 羌活 獨活 各二錢 藁本 防風 甘草 各一錢 川芎 蔓荊子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東垣)”

23) 許浚, 『東醫寶鑑』, 『生脉散』 “麥門冬二錢 人參 五味子 各一錢 水煎 夏月 代熟水飲之 或加黃芪 甘草 各一錢 或加黃栢二分服之 則令人氣力涌出 生用(入門)”

○ 11월 17일: 〈오후에 세자가 “새벽부터 오른쪽 눈이 시큰거리는 증세가 있다”라고 하령하였다. (중략) “오른쪽 눈의 흰자위가 매우 붉고 통증이 있으니, 이는 곧 두풍(頭風)과 위열(胃熱)증세입니다.” 서각음(犀角飲)에 세폐산(洗肺散)을 합하고 방풍과 형개수(荊芥穗)를 각각 1돈씩 더하고 생강즙에 볶은 황련 5푼을 더하여 지은 약 3첩을 올렸다. 세자가 밤 2경에 의관을 불러 “눈동자의 통증이 심하니 비록 밤이지만 침을 맞고자 하는데 어떠한가?”라고 하령하였다. “밤이 깊으니 침을 맞아서 안 됩니다. 내일 들어가 진찰한 뒤 침 놓을 혈을 의논하기로 하고, 우선 염탕(鹽湯, 끓인 소금물)으로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서각음(犀角飲)은 화독이 성하거나 비위에 몰린 열이 눈에 올라와서 생기는 것으로, 각막과 홍채사이에 누런 고름이 고여 있고 눈이 아프며 꺾끄러울 때 사용한다.²⁴⁾ 세폐산(洗肺散)은 가래가 있는 기침과 열이 있고 폐기(肺氣)가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²⁵⁾ 따라서 세자는 열이 나고 눈병이 생겼고 또한 열로 인한 기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18일: 〈“염탕으로 씻은 뒤 통증이 조금 덜해졌다. 午時 무렵에 침을 맞겠다”라고 답하였다. 午時에 침 맞을 시각을 아뢰니 “통증이 차츰 사라지고 있고 날씨가 매우 추우니 오늘밤 증세를 더 보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령하였다.〉

세자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는 듯하다. 여기에 사용된 소금물은 지금의 생리식염수(인공눈물)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눈병에 식염수로 자주 씻어주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상례이다.

11월 19일: 〈세자가 편찮아 동지망전례를 쉬었다. 세자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으니, 오늘밤 증세를 다시 본 뒤 내일 약 처방을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11월 20일: 〈“차도가 없다. 문안하지 말라. 다만 왼쪽 눈에 또 통증이 조금 있다”라고 답하였다. 의관이 들어가 진찰한 뒤 서각음에 세폐산을 합하고 추가로 더 넣은 것 중에서 방풍과 형개를 뺀 뒤, 적복령 2돈, 술에 볶은 적작약 1돈5푼, 독활 1돈을 더 넣어 지은 약 3첩을 올렸다.〉

눈병이 약간 차도가 있는듯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24) 許浚, 『東醫寶鑑』, 『犀角飲』 “治黃膜上衝 睛痛閉澀 犀角鎔屑二錢 羌活 黃芩 車前子 各一錢 白附子 麥門冬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 食後服(得效)”

25) 許浚, 『東醫寶鑑』, 『洗肺散』 “治咳嗽痰盛 有熱 肺氣不清利 半夏三錢 黃芩二錢 天門冬 麥門冬 五味子 各一錢半 杏仁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丹心)”

약재를 약간 가감하여 다시 처방한 듯하다.

11월 21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11월 22일: <“겨울에 침을 맞으시는 것이 불안하므로 우선 약을 올렸으나 오래도록 효험이 없으니, 오늘 침놓을 혈을 의논한 뒤 침을 맞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자가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정오에 세자가 남향하여 앉아 좌우측의 족삼리혈 태충혈 함곡혈 신문혈 풍지혈 영향혈에 침을 맞았다.>

한약을 복용하여도 차도가 없자 자침을 시도하였다. 풍지(風池)혈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 속하지만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 양유맥(陽維脈) 양교맥(陽蹻脈) 등이 서로 만나는 혈이다. 두통 오관과질환 정신병 신경계통질환 등에 상용되고 있다. 영향(迎香)혈은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속하며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과 서로 만나는 혈이다.

11월 23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폐산에 시호 청피 각 8푼과 오줌에 담갔다가 볶은 향부자 1돈 5푼, 감국 2돈, 맥문동 1돈을 더하여 3첩을 지어 올렸다.>

그동안 합방하였던 서각음을 빼고 다른 약재를 가미하였다. 그동안 사용한 서각음이 세자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1월 24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에 “약이 뚜렷한 효험이 없으니 오늘부터 침을 맞아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아뢰니 “그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정오에 세자가 남향으로 앉아 좌우측의 족삼리혈 태충혈 함곡혈 신문혈 풍지혈에 침을 맞았다.>

22일의 혈자리에서 영향혈을 빼고 놓았다. 그동안 치료가 효험이 없어 치료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11월 25일: <“지어 올린 약이 오늘로 끝나는데, 더 지어 올려야 하겠습니까?”라고 아뢰니 “우선 며칠 기다리며 증세를 보아가며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세폐산이 세자에게 별 효과가 없음을 인식한 듯하다. 하지만 눈병이 많이 호전되었기에 이렇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1월 27일: <“이미 차도가 있으니 이후로는 문안하지 말라”>

12월 5일: <“침과 약을 함께 썼는데도 오래 완쾌되지 않고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 신 등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문안드립니다.” “거의 회복되었지만 아무래도 남은 증세가 다 낫지는 않았다”라고 답하였다.>

세자의 증상이 차도가 조금씩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다 치유된 것은 아니다. 한약 때문이 아니라 소금물로 눈을 계속 닦았기 때문에 효험을 본 듯하다.

〈표 5〉 1641년 세자치료

월/일	병증	자침 및 처방
1/24	마비증상	외관 후계 내관 열결, 족임읍 내정 양교 공손 증완
1/27		외관 후계 내관 열결 족임읍 내정 양교 공손 음교
2/3		외관 후계 내관 족임읍 내정 공손 증완
2/6	有泄瀉 腹中不安之候	외관 내관 열결 족임읍 태충 음교 족삼리 가미평위산 2첩
2/9	泄瀉之候彌留 腹中益不平 厭進水刺	가미사령산 3첩
2/17	自昨夜感寒 頭痛寒熱往來 失音咳喘	가미인삼패독산 3첩
2/18	諸症差減 而但咳喘時 頭部隱痛 胸膈不安 又有惡寒惡心 頓厭飲食之症	가미소시호탕 3첩
2/20	회복	
3/7		곡지혈, 족삼리혈 절골혈 7장씩 뜸
4/ 8	어깨뼈가 당기는 징후	가미강활승습탕 3첩
5/20	不能耐暑 煩渴引飲	생맥산
6/4	뱃속이 불편한 증세	가미평위산 3첩
11/17	右眼酸病之候 (頭風 胃熱)	서각음 + 세폐산 + 가미 3첩
11/20	左眼 又有微痛之疾	서각음 + 세폐산 + 가미 3첩
11/22		족삼리 태충 합곡 신문 풍지 영향
11/23		세폐산 가미 3첩
11/24		족삼리 태충 합곡 신문 풍지
12/5	거의 회복되었지만 일부 남음	

6) 1642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1월 1일: <도중에 말이 넘어졌으나 다치지지는 않았다. 소합원(蘇合元) 3알을 술에 타서 한 잔 들게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소합원(蘇合元)은 소합향원(蘇合香元)으로 일체의 기(氣)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²⁶⁾ 일반적으로 소음인에게 많이 사용하는데 세자가 놀랐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합원을 처방한 것이다.

1월 2일: <“어제는 비록 다치신 곳이 없으나 어혈을 푸는 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약을 의논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니 “처음에 다친 곳이 없고 하루 밤 지났는데도 편안하니 약을 의논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넘어졌을 때 외상이 없어도 놀래 속에서 기가 뭉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이 뭉친 기를 풀어주도록 권유한 것이다.

○ 2월 15일: <말이 또 넘어져 세자가 또 떨어졌으나 상처가 대단치 않아 천만다행이었다. 문안하니 “다치지지는 않았다”라고 답하였다. 소합원 5알을 갈아 소주에 섞어 올렸더니 드셨다.>

1월 1일에는 소합원을 3알 사용하였으나, 이번에는 5알을 사용하였다. 1달 간격으로 연이어 넘어지니 기가 많이 뭉치고 놀랐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합원의 양을 늘린 것이다.

2월 23일: <“여러 번 말이 넘어져 떨어져서 놀라셨으므로 비록 뚜렷하게 다친 곳은 없다 하더라도 어혈을 풀고 병을 막는 약을 의관에게 짓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니,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술에 볶은 대황 7푼, 시호 1돈, 볶은 천산갑 1돈과 청피 각 5돈을 더 넣은 당귀수산(當歸鬚散) 5첩을 지어 올렸다.>

사냥에 나갔을 때 말이 넘어졌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심양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치료에 들어간 것이다. 기(氣)가 뭉쳐 혈(血)이 맺혀지고 가슴 배 옆구리가 아플 때 주로 사용하는 당귀수산을 올린 것이다.²⁷⁾ 즉 타박어혈로 인한

26) 許浚, 『東醫寶鑑』, 『蘇合香元』 “治一切氣疾 及中氣 上氣 氣逆 氣鬱 氣痛. 白朮 木香 沉香 麝香 丁香 安息香 白檀香 朱砂(水飛半爲衣) 犀角 訶子皮 香附子 藿撥 各二兩 蘇合油(入安息香膏內) 乳香 龍腦 各一兩 右細末 用安息香膏 并煉蜜 搜和千搗 每一兩 分作四十丸 每取二三丸 井華水或溫水 溫酒 薑湯化服(局方)”

27) 許浚, 『東醫寶鑑』, 『當歸鬚散』 “治打撲損傷 致氣凝血結 胸腹脇痛 當歸尾一錢半 赤芍藥 烏藥

어혈을 풀기위해 당귀수산을 사용한 것으로 매우 일반적인 처방이다.

○ 3월 13일: 〈요즈음 비위가 약해져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세가 있고 두 다리도 제법 시리고 아프니 아마도 낙상하여 그런 것 같다. 약을 먹거나 침을 맞아 어혈과 울결증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하다.〉

3월 14일: 〈오중에 붉은 향부자 1돈과 술에 볶은 백작약 7푼, 사인 4푼, 목향 3푼을 넣은 육군자탕(六君子湯) 5첩을 지어 들이고, 도인(桃仁)도 달여서 함께 올렸다.〉

육군자탕은 기(氣)가 허하여 담(痰)이 많아진 것을 치료한다.²⁸⁾ 세자의 상태를 기가 허해져 순환이 되지 않아 담이 생긴 것으로 파악 하였으며, 도인을 별도로 달여 올린 것은 어혈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3월 17일: 〈지어 올린 약을 이미 3첩이나 먹었지만 효과가 없다. 뱃속이 꼬이는 듯 아파 편치 않고, 갈비뼈 아래는 당기면서 아픈 증세가 있는 듯하다. 어혈이 움직여 병이 생긴 것인가, 약이 증상에 맞지 않는 것인가? 발이 아프던 것은 멎었다.〉

육군자탕이 세자에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첩 사용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관들은 계속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3월 18일: 〈“어제 의관에게 내린 명령을 받고 타는 듯한 걱정을 이기지 못하여, 신 등이 의관과 더불어 상의해보았는데, 여러 의관들이 말하기를 ‘비위가 습하고 열이 나니 부작용이 일어나서 배가 편안치 못한 증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어 올린 약은 이 증세에 가장 잘 듣지만, 반드시 여러 날 먹은 뒤에야 비로소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 4~5첩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앞의 처방에 당귀 1돈을 더하여 어혈을 다스려 피가 잘 돌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이를 여쭙니다.” “알았다. 그대로 약을 지어라”라고 답하였다.〉

당귀는 혈을 보하고 다스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 〈육군자탕에 전처럼 가미하고 술로 씻은 당귀 1돈을 더하여 6첩을 지어 들였다.〉

香附子 蘇木 各一錢 紅花八分 桃仁七分 桂皮六分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酒水相半 煎服(入門)”

28) 許浚, 『東醫寶鑑』, 『六君子湯』 “治氣虛痰盛 半夏 白朮 各一錢半 陳皮 白茯苓 人參 各一錢 甘草 炙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棗二枚 煎服(正傳) ○一方 六味各一錢等分”

도인 대신 당귀를 넣은 것으로 보아 세자의 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1일: 〈이미 차도가 있으니 이후로는 문안하지 말라〉

비위가 상해 울렁거리는 증상이 호전된 것이다.

○ 9월 13일: 〈“머리에 바람이 들어 온 몸이 춥고 오그라지는 것 같으며 또한 전에 앓던 어지럼증이 요즘 제법 심하니 무슨 까닭인가?” “지금 의관에게 하령하신 것을 듣고, 삼가 옥체가 불편한 증세를 살펴 염려되는 바를 구구히 아웁니다. 현기증을 고치는 약에 대해서는 의관에게 약을 지어 들이게 하십시오. 어지럼증은 더욱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감히 이같이 아웁니다.” 세자가 “감기는 그리 대단치 않다. 며칠 간 증세를 보아가며 조처하겠다. 현기증은 마땅히 대조의 어의들에게 두루 상의하여 약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내일 서연은 기후가 편치 않으므로 쉬자고 여쭙니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세자는 현기증에 약을 쓰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한약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다.

9월 14일: 〈약간 편찮은 기미가 있으므로 내일 망전례를 쉬는 것이 어떠한지 여쭙니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9월 18일: 〈연일 편찮은 기미가 있으므로 며칠 간 서연을 쉬는 것이 어떠한지 여쭙니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9월 24일: 〈보덕 박서가 아뢰었다. “이곳은 기후가 음침하고 추우며 샘물도 짜고 차서 여염집 사람이라도 겨우 1년만 지내면 병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자로서 억류되신 지 이제 6년이나 되셨으니, 그간의 갖은 고초와 거처와 음식의 불편함으로 인해 병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춘추가 한창 이시고 옥체가 강건하시다 하더라도 속에서 점점 쌓이면 어찌 상한 데가 없겠습니까? 아직은 뚜렷이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가벼이 여기는 뜻이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근자에 들으니, 어지럼증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고 뒤이어 기침하는 기색을 살펴보니 평소와 많이 다르시다고 합니다.”〉

심양에서의 생활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기록이며, 세자가 계속 현기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을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10월 4일: 〈세자께서 평소에 산증이 있는데 수시로 병이 나 엄동에 멀리 행차하기가 힘든 사정을 말하고자 하였다.〉

신하들이 세자의 산증을 매우 염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자는 산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증은 추위에 더욱 심해지므로 세자가 멀리 나가는 것을 더욱 염려한 것이다.

○ 10월 29일: <“몸이 조금 좋지 않은 듯하니 내일 망전례는 쉬겠다.”>

11월 1일: <“마침 감기기운이 있으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약을 지을 것을 청하니, “약을 짓지 말고 인삼과 금은화(金銀花, 인동초) 두 약재로 1첩을 지어 들이라”라고 하였다.>

인삼은 소음인에게 많이 사용하는 약재이고, 금은화는 소양인 약재이다. 세자가 금은화를 지정하여 말한 것을 보면 약초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2일: <아픈 것은 대단치 않고 이제 이미 약간 나아졌으니, 문안하지 말라>

7) 1643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12월 12일: <지난 밤 세자가 하령하기를, “기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오한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물려가 보덕과 상의하여 약을 지어 들이라”라고 하였다. 즉시 삼소음(參蘇飲)을 지어 들었다. 세자의 불편한 증세가 낮이 되자 더욱 심해졌다. 오한과 번열이 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보아 찬바람 때문에 심한 감기에 걸린 듯하다고 하였다. 즉시 가입인삼강활산(加入人蔘羌活散) 2첩을 지어 바쳤다. 문안하니 “낮보다는 조금 덜하다”라고 답하였다.>

삼소음(參蘇飲)은 풍한에 상하여 두통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안으로 칠정(七情)에 상하여 가래가 많고 흉만조열(胸滿潮熱)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²⁹⁾ 가입인삼강활산(가미인삼강활산)은 인삼강활산(人蔘羌活散)에 가미한 것이나 어떤 약재를 넣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삼강활산은 감기에 걸려 고열과 번열이 나면서 가래가 나올 때 사용하는데,³⁰⁾ 처방구성 중의 강활 독활 전호 방풍

29) 許浚, 『東醫寶鑑』, 『參蘇飲』, “治感傷風寒 頭痛發熱 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潮熱 人蔘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 各一錢 陳皮 桔梗 枳殼 甘草 各七分半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 <易簡>”

복령 박하 등이 소양인 약재로 사용된다.

12월 13일: <“어제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답하였다. 진찰하고 나서 증세가 어제보다는 훨씬 멎었다고 하였다.>

삼소음보다는 가입인삼강활산이 세자에게 더 좋은 효과를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12월 14일: <세자가 “몸이 어제보다 훨씬 편안하니 약을 상의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 아뢰기를 “비록 조금 나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증세가 우려되니, 의관으로 하여금 다시 문후하고 약을 상의하여 지어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렇다면 그대로 하라”라고 답하였다. 화개산 2첩에 가미한 약을 지어 바쳤다.>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기침하는 것이 약간 남아서 화개산을 더 사용한 것이다.

8) 1644년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

○ 1월 30일: <두 장수는 ‘이제 우러러 보니 세자의 안색이 매우 꺼칠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세자가 ‘병구완을 하느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처럼 되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세자가 인조의 병환 때문에 서울에 와 있을 때 같이 온 청나라 장수가 세자의 얼굴을 보고 안색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월 8일: <세자가 며칠 전부터 감기기운이 약간 있었지만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날 밤에 가입인삼강활산을 지어 올렸다.>

서울에서 심양으로의 이동 중에 세자가 감기에 걸리자 소양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가입인삼강활산을 처방하였다. 세자가 전에 가입인삼강활산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처방한 것이다.

30) 許浚, 『東醫寶鑑』, 『人參羌活散』, “治中風 痰盛 煩熱 羌活 獨活 前胡 人參 防風 天麻 赤茯苓 薄荷 川芎 黃芩 枳殼 蔓荊子 桔梗 甘草 各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桑白皮七寸 同煎服(得效)”

許浚, 『東醫寶鑑』, 『人參羌活散』, “治傷風寒 發熱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人參 赤茯苓 川芎 甘草 各二分 天麻 地骨皮 各一分 右剉作一貼 入薄荷三葉 水煎服(綱目)”

3월 9일: <“증세가 대단치 않으니 오늘 이후로는 문안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 의관이 들어가 진찰하였다.>

3월 10일: <가입인삼강활산을 지어 올렸다.>

3월 11일: <세자의 기후에 차도가 있었다.>

감기기운이 가입인삼강활산을 복용 후 호전되었다.

○ 4월 12일: <이날 저녁에 세자가 감기기운이 있고 차츰 설사도 하였다.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에 다른 약재를 넣어 약을 지어 올리고 자기 전에 복용하게 하였다.>

청주(淸主)와 같이 사냥을 하면서 한데서 잤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불환금정기산은 감기에 걸려 머리와 온몸이 아프며 오한과 발열이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한다.³¹⁾ 위장이 약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감기에 걸리거나 설사가 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불환금정기산은 평위산에 곽향과 반하를 더 첨가한 것으로 모두 소음인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4월 13일: <“밤사이 회복되어 지금은 아픈 곳이 없으니 약을 더 올리지 말라”라고 답하였다.>

불환금정기산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아 감기기운과 설사기운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 6월 7일: <제호탕(醍醐湯)을 지어 올렸다.>

제호탕은 서열(暑熱)을 풀고 번갈증을 그치게 한다.³²⁾ 세자에게 여름에 화기가 떠서 더위를 많이 느끼자 제호탕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 6월 21일: <“요즘 머리와 손발이 답답하고 번열이 나서 불편한 기미가 약간 있다. 먹는 약이 입에 쓰니 몇 군데 중요한 혈을 가려 침을 놓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령하였다.>

세자 본인이 속이 답답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화기가 계속 뗏음을 알 수

31) 許浚, 『東醫寶鑑』, 『不換金正氣散』,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或寒熱往來 蒼朮二錢 厚朴 陳皮 藿香 半夏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 〈入門〉”

32) 許浚, 『東醫寶鑑』, 『醍醐湯』, “解暑熱 止煩渴 烏梅肉另末一斤 草果一兩 縮砂 白檀香 各五錢 煉蜜五斤 右細末 入蜜 微沸 攪勻 磁器盛 冷水調服(局方)”

있다.

6월 22일: <“어제 의관에게 하령하신 말씀을 들으니, 옥체가 편찮으시다 하니 이것은 필시 말을 타고 달린 나머지 힘이 들어 생긴 것입니다. 빨리 약을 지어야 한다는 뜻을 감히 아립니다.” 세자가 “알았다. 약을 짓는 일은 며칠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6월 24일: <발의 곤륜혈과 족삼리혈, 손의 후계혈 중저혈 신문혈 등 10군데 혈에 침을 놓았다.>

곤륜(崑崙)혈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화혈(火穴)이다. 중저(中渚)혈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목혈(木穴)이자 자경보혈(自經補穴)이다. 자침한 모든 혈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손발과 머리에서 번열(煩熱)이 있자 이를 해소하고자 자침한 것으로 보인다.

○ 7월 3일: <세자가 며칠 전부터 감기가 들어 편찮은 기미가 있으므로 의관에게 약을 지어 바치라고 하령하였다. 의관이 ‘인삼패독산에 소금과 술에 볶은 지모 1돈, 갈근, 볶은 편금, 향유 각 5푼, 소엽 3푼을 넣어 연달아 2~3첩을 드시고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삼패독산을 5일까지 계속 지어 올린다. 인삼패독산은 전에 효험을 많이 보았기에 이번에도 사용된 것이다.

7월 4일: <“밤사이에 자못 차도가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7월 5일: <“증세가 어제와 같다”라고 답하였다.>

7월 6일: <탕약을 올리는 일을 그만두었다.>

인삼패독산을 복용 후 감기가 호전되었다.

○ 7월 28일: <세자가 한기를 느끼고 왼쪽 어깨와 팔이 마비되면서 당기고 아픈 증세가 있었다. 오른손의 지구혈 곡지혈 신문혈과 오른발의 절골혈 곤륜혈 등에 각각 침을 1대씩 맞았다. “오적산에 강활 1돈, 오약 7푼, 형개수 5푼, 자소엽 3푼을 더한 약 2, 3첩을 계속 복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지어 올린다는 뜻을 감히 아립니다.” 이에 “한 번 복용해 볼 테니, 일단 지어 들이도록 하라”라고 답하였다.>

지구(支溝)혈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화혈(火穴)로 옆구리[脇肋]를 주로 치료한다. 오적산(五積散)은 풍한(風寒)에 상하여 두통 신동(身疼)이 있고 사지

(四肢)가 율냉(逆冷)하고 흉복통(胸腹痛)이 있고 구토와 설사가 있는 것과 속으로 는 날것과 찬 음식에 상하고 겉으로는 풍랭(風冷)에 상한 것을 모두 치료한다.³³⁾ 오적(五積)이란 氣, 血, 痰, 飲, 食 등이 체내에 적체된 것을 의미하며, 오적산은 이와 같은 적체를 풀어내어 병을 치료하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세자의 어깨와 팔이 아픈 것을 한(寒)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오적산을 처방한 것이다.

7월 29일: 〈미시(未時)에 세자가 어제 점찍어 둔 혈(穴)에 침을 맞았다.〉

어제에 이어 같은 혈에 침을 맞았다. 8월 19일부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때 치료한 것이 효험을 본 것인지, 아니면 세자가 계속 한기와 마비증상으로 고생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8월 18일까지의 기록에 세자의 병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치료된 듯하다. 하지만 8월 19일 서행(西行)에 세자가 동행하게 되어, 이에 대한 준비 때문에 치료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1645년 을유동궁일기의 치료과정 분석과 사망에 대한 견해

현재 1644년 8월 19일부터 1645년 2월 16일까지의 세자일기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세자가 귀국하기 직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심양에서 북경 문연각에 거처하면서 천주학과 서양과학을 접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귀국하는 과정에서의 노독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 2월 18일: 〈세자께서 몇 천리를 지나온 여독이 쌓여 앓고 있는 증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오늘 안에는 예를 행하기가 결코 어려우니 다시 건강 상태를 살펴 보고 나서 예를 행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세자의 노독이 심하고 몸이 매우 피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월 19일: 〈몸이 편치 않으셔서 오늘 예를 행하시는 것 또한 염려스러웠으니, 칙사를 접견하는 일은 날짜를 물려서 정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라고 아뢰니, “이 증세를 보니 하루이틀 쯤 물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하마연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33) 許浚, 『東醫寶鑑』, 『五積散』, “治感傷風寒 頭痛身疼 四肢逆冷 胸腹作痛 嘔吐泄瀉 或內傷生冷 外感風冷 並皆主之 蒼朮二錢 麻黃 陳皮 各一錢 厚朴 桔梗 枳殼 當歸 乾薑 白芍藥 白茯苓 各八分 白芷 川芎 半夏 桂皮 各七分 甘草六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葱白三莖 水煎服〈入門〉”

2월 30일: 〈척사가 “몸도 편치 않으신데 배례를 행하다가 더 아프실까 걱정되니 읍례를 행하였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청나라에서부터 같이 동행한 척사가 세자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데, 귀국하기 이전부터 세자의 병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배례가 힘들어 읍례를 권할 정도로 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3월 4일: 〈세자의 얼굴을 보오니 아직도 편치 않은 기운이 있는 듯하여 걱정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안색(顔色)을 우러러 보니 자못 피곤하고 편치 못한 기색이 있으니 미안하기가 이미 극에 이르렀습니다.〉

척사는 여러 번 세자의 병세를 언급한 것을 보면 세자가 건강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3월 6일: 〈침 맞은 혈은 손의 좌우측 간사혈, 태연혈, 신문혈과 발의 좌우측 행간혈, 내정혈, 신맥혈, 족임읍혈이다.〉

이후 8일, 10일, 12일, 14일 동일하게 치료받는다. 간사(間使)혈은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금혈(金穴)로 심통 정신분열증 흉통 흉비 전광 협심증 등에 사용된다. 태연(太淵)혈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토혈(土穴)이자 원혈(元穴)이다. 팔회(八會)혈의 맥회(脈會)로 모든 혈맥의 병을 다스린다. 폐경(肺經)의 모혈(母穴)로 자경보혈(自經補穴)이기도 하다. 행간(行間)혈은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화혈(火穴)로 자경사혈(自經瀉穴)이다. 따라서 세자의 간열(肝熱)과 혈열(血熱)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세자의 증상이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자침한 혈로 미루어 보면 세자는 열이 솟구쳐 전광증상이 나타나고 헛소리를 하는 단계로 보인다. 또한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3월 18일: 〈심한 천식(喘息) 흉번(胸煩, 가슴답답증) 혼곤(昏困,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피곤) 등의 증세가 며칠 전부터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모두 폐열(肺熱)에 속하므로 모름지기 청화강기(淸火降氣)하는 처방을 써서 폐열(肺熱)을 내리면 못 증상들도 자연히 수그러들어 다스려질 것이니 청폐탕(淸肺湯)에 지모(知母) 8푼을 더하여 연달아 10첩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처럼 지어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열을 내리려고 침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청폐탕을 써서 화기를 잡으려고 하였다. 청폐탕(淸肺湯)은 오래된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사용한다.³⁴⁾ 일반적

으로 가래가 나온 후에 피가 나오면 이는 열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청폐탕을 사용하고, 토혈한 다음에 가래가 나오면 이는 음허(陰虛)한 것으로 보아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을 사용한다.³⁵⁾ 즉 오래된 기침을 치료하는데 정반대의 처방이 존재하는데, 청폐탕은 열을 내리는 처방이고, 자음강화탕은 음기를 보강하는 처방이다. 즉 당시의 의원들은 세자의 증상을 화기가 쌓여 생긴 것으로 보아 청폐탕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세자는 음기가 허해져 생긴 것으로 후세방 입장으로도 자음강화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상의학 입장에서 보면 소양인의 형방지황탕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3월 23일: <숨찬 증상과 천식증상이 전보다 더 심해지고, 새벽이 오면 답답증이 심해져 두통이 오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나 물로 닦으면 약간 줄어들어 쉬수 있다. 또한 옆구리가 당기고(脇間牽引) 가슴이 응어리지고 답답한(胸膈懊惱) 증세가 있어 때때로 발작하는데, 청심원(淸心元)을 먹으면 좀 진정되는 듯하다. 잠자리에 들 때 죽력과 생강즙을 복용하면 밤에 편히 자고, 복용하지 않으면 편치 않다.>

청심원(淸心元)은 중풍에 걸려 인사불성이 되거나 가래가 차고 정신이 혼미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약이지만 속이 답답하고 열이 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심원이라 하면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을 지칭한다.³⁶⁾ 죽력(竹瀝)은 대나무 줄기를 불에 구워서 받은 즙액으로 대나무의 정기

34) 許浚, 『東醫寶鑑』, 『淸肺湯』, “先痰後血 是積熱也 赤茯苓 陳皮 當歸 生地黃 赤芍藥 天門冬 麥門冬 黃芩 梔子 紫菀 阿膠珠 桑白皮 各七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棗二枚 烏梅一箇 水煎服(回春)”

許浚, 『東醫寶鑑』, 『淸肺湯』, “治久嗽及痰嗽 肺脹嗽 黃芩一錢半 桔梗 赤茯苓 桑白皮 陳皮 貝母 各一錢 當歸 天門冬 梔子 杏仁 麥門冬 各七分 五味子七粒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回春)”

35) 許浚, 『東醫寶鑑』, “先吐痰後見血 是積熱 宜淸肺湯 先吐血後見痰 是陰虛 宜滋陰降火湯(回春)”

36) 許浚, 『東醫寶鑑』, 『牛黃淸心元』 “治卒中風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憤 言語蹇澁 口眼喎斜 手足不遂 等證 山藥七錢 甘草炒五錢 人參 蒲黃炒 神麴炒 各二錢半 犀角二錢 大豆黃卷炒 肉桂 阿膠炒 各一錢七分半 白芍藥 麥門冬 黃芩 當歸 防風 朱砂水飛 白朮 各一錢半 柴胡 桔梗 杏仁 白茯苓 川芎 各一錢二分半 牛黃一錢二分 羚羊角 麝香 龍腦 各一錢 雄黃八分 白斂 乾薑 炮 七分半 金箔一百二十箔內四十箔爲衣 大棗二十枚 蒸取肉研爲膏 右爲末 棗膏入煉蜜和勻 每一兩作十丸 金箔爲衣 每取一丸 溫水化下(醫鑑)”

(精氣)라 할 수 있다. 성질이 매우 차가워서 오래된 갈증과 심번(心煩)에 사용한다. 『東醫寶鑑』에서는 죽력의 효능에 대하여 ‘갑자기 온 중풍(中風), 가슴의 대열(大熱)을 다스리고 번민(煩悶)을 그치게 하고, 중풍으로 인한 실음불어(失音不語) 담열(痰熱)로 인한 혼미(昏迷)를 치료하며 소갈(消渴)을 그치게 하고 파상풍과 산후의 발열(發熱) 소아의 경간(驚癇) 등 일체의 위급한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세자의 상태가 숨이 차고 천식이 심해졌으며 열이 뜨고 속이 답답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데, 우황청심환과 죽력의 힘을 빌려 겨우 잠을 자는 형국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아 소양(小陽)으로 전입(轉入)된 것은 옆구리 아래가 땀없고 그득하며 헛구역이 나고 먹지를 못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이니 아직 토하거나 설사시키지 않고, 맥이 침(沈)하고 긴(緊)한 경우라면 소시호탕(少柴胡湯)을 투여한다. 만약 이미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거나 땀을 내어 헛소리하는 것은 시호증(柴胡證)이 없어진 것이고 이것을 괴병(壞病)이라하니 괴병(壞病)치법에 의거하여야 한다.’³⁷⁾라고 장중경의 설을 이야기하면서 소양인 상한발광섬어증(傷寒發狂譫語證)을 형방지황탕으로 치료하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세자에게 형방지황탕을 투여 리소변(利小便)하여 강음(降陰)하여야 하나 오히려 반대로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양인병은 화(火)와 열(熱)이 원인이므로 그 변동이 매우 빨라서 악화되는 수가 많다. 이를 간과하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듯하다.

3월 24일: 〈증세가 똑같으니 의관에게 들어와 진맥하게 하라〉

3월 25일: 〈증세에 더하고 덜함이 없다〉

3월 26일: 〈증세에 더하고 덜함이 없고, 지어 들인 약 1첩은 이미 먹었다〉

3월 27일: 〈어제와 똑같다〉

3월 28일: 〈증세에 더하고 덜함이 없다〉

청폐탕으로 차도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계속 같은 치료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처방을 바꾸었으나, 이번에는 바꾸지 않고 있다.

4월 1일: 〈증세는 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으니 의관이 들어와 진맥하라〉

4월 6일: 〈천식(喘症)과 기침(咳嗽)은 잠시 그친 것 같지만 나머지 증상은 아

3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張仲景曰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尚未吐下 脈沈緊者 如小柴胡湯 若已吐下 發汗譫語 柴胡湯證罷 此爲壞證 宜壞法治之.”

직도 낮지 않았다)

4월 11일: <전에 지어 들인 탕약은 어제 이미 다 마셨다. 탕약을 환약으로 지어 들이라. 증세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증상은 없다.>

원문의 훼손으로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아 세밀히 알 수는 없지만 탕약을 환약으로 지으라고 한 것을 보면 세자가 탕약을 마시기 힘든 상황까지 이른 듯하다.

4월 18일: <협통(脇痛)과 식후의 혼곤(昏困,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피곤) 그리고 뱃속이 편치 않은 증상은 똑같고 현기증은 전보다 더 심해졌다. 현기증이 매우 심하여 극도로 고통스럽다.>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기력이 쇠하여 현기증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4월 22일: <이것은 분명 감기로 보아야 한다. 말린 침과 지모 각 1돈, 술에 볶은 황련, 볶은 치자씨 각 7푼을 더 넣은 소시호탕(小柴胡湯) 3첩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한과 발열이 반복되니 찬약과 따뜻한 약이 동시에 있는 소시호탕으로 화해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세자는 오래된 질환으로 이미 음허증상으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치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기로 오진하여 계속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4월 23일: <“증세는 어제와 다름이 없다.”고 답하였다. 약방이 문안드리며, “엎드려 듣건대 추워서 떨고 난 뒤에 아직도 열기가 있다고 하시니, 지극히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 진맥한 의관 등은 이것이 학질이라고 판정하였는데, 내일 새벽에 마땅히 먼저 침을 놓은 뒤에 다시 의관들과 확실하게 헤아린 뒤에 약을 정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립니다”라고 하니, “알았다. 침 맞는 일도 또한 알았다”고 답하였다. 약방이 “오늘 정오쯤에 세자께서 다시 추워 떠는 증세가 있어서 진맥하니 지난 21일 밤에 갑자기 추워 떨었었는데, 오늘 또한 그러하니 이는 분명 학질의 증상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먼저 내일 이른 아침에 침을 놓아 학질의 열을 빼내고 다시 증세를 보아 약을 의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은 말라리아를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이다. 학질모기에 전염되는 말라리아의 증상은 오한전율(惡寒戰慄)로 시작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 서 높은 열이 나며, 땀이 나는 특징이 있다. 열대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1년 내내 유행하지만, 온대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특히 25℃ 이상 2주 이상 계속되어야 발생한다. 1645년의 4월 날씨가 따뜻하다 하여도 말라리아모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온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자의 학질은 말라리아가 아닌 다른 종류의 학질이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은 범위가 매우 넓고 風瘧, 寒瘧, 熱瘧, 濕瘧, 痰瘧, 食瘧, 勞瘧, 鬼瘧, 疫瘧, 瘴瘧, 瘵瘧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자를 열학(熱瘧)과 노학(勞瘧) 그리고 귀학(鬼瘧)의 일종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의학에서는 ‘대개 음허증은 매일 오후에 오한발열(惡寒發熱)하다가 해가 저물 때에는 도리어 약간 땀이 나고 풀리는 것이니 학질(瘧疾)로 잘못 알고 치료 하다가는 흔히 사망하는 지경에 이른다.’³⁸⁾라는 공신(龔信)의 말을 인용하면서, 음허증을 학질로 잘못 치료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즉 세자의 증상을 학질로 보지 않고 음허증으로 보아야 하며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이나 십이미지황탕(十二味地黃湯)을 써야 한다. 하지만 세자의 증상을 학질로 보아 학질치료를 하는 바람에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4월 24일: <밤에 열이 심하여 하나도 잠을 자지 못하였다. 인시 정각에 침을 맞은 혈은 간사혈과 십삼귀혈(十三鬼穴)의 제일혈(人中), 제이혈(少商) 제삼혈(隱白) 제사혈(大陵) 제오혈(申脈) 제육혈(風府) 제칠혈(頰車) 제팔혈(承漿) 제구혈(勞宮) 제십혈(上星) 제십이혈(曲池) 제십삼혈(海泉)이다. 밤에 번열(煩熱,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어 잠들지 못하였다

약방이 “세자께서 지난 21일 밤에 갑자기 추워 떨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쳐서 22일에는 상태가 평상시와 같았는데, 23일 다시 추워 떠는데, 비록 갓옷을 겹으로 입어도 추워 웅크리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추운 기운이 비로소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번열(煩熱)이 계속되어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청심원을 올린 뒤에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열기가 아직 물러나지 않아 밤새 시달리며 침소에 들지 못하였으며, 목마름증 또한 심하여 정화수를 올려도 조금도 목마름증이 그치지 않으며, 천식이 거칠고 급하여 편히 눕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증상으로 여러 어의들에게 문의하니 ‘먼저 시호지모탕(柴胡知母湯)에 껌질과 함께 볶은 치자(梔子), 생강즙에 볶은 황련(黃蓮), 각 1돈과 소금물에 볶은 황백(黃柏) 5푼을 더해 3첩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증세가 어떠한가를 보고 다시 의논 하겠다.’고 하였기에 이처럼 지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립니다.”라고 임금께

3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龔信曰 凡陰虛證 每日午後 惡寒發熱 至晚 亦得微汗而解 誤作瘧治 多致不救.”

아뢰었다.〉

십삼귀혈(十三鬼穴)은 백사(百邪)와 전광(癲狂)으로 인한 병에 사용하는 혈이다. 여기에서 제십일혈을 생략하였는데, 제십일혈이 남자는 회음(會陰)혈이고 여자는 옥문두(玉門頭)혈이므로 세자에게 시술하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학질에 간사혈을 사용하면 매우 묘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³⁹⁾ 정신질환이나 율화병으로 인한 심통(心痛)에 일반적으로 간사(間使)혈과 후계(後谿)혈을 자침한 다음 십삼귀혈(十三鬼穴)을 자침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세자가 고열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오한이 드는 것을 보고 사기(邪氣)를 잡으려고 간사혈과 십삼귀혈에 침을 놓은 것이다. 시호지모탕(柴胡知母湯)은 열학(熱瘡, 열로 인한 학질)과 장학(瘡瘡)에 사용하는 처방이다.⁴⁰⁾ 세자를 열학으로 보아 계속 치료하고 있다.

4월 25일 〈“어제 밤에는 아침까지 앓아서 겨우겨우 보냈다. 오늘 밤에는 비록 앓아서 밤을 보내기는 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한 듯하다”고 답하였다. 인시 정각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침을 맞았다.〉

4월 26일: 〈약방이 “세자의 증상으로 최득룡에게 물어보니 ‘상한이 아직 풀리지 않은지 오늘로 6일에 이르니, 소시호탕에 말린 침, 지모, 술로 씻은 생지황, 지골피 각 1돈과 술에 볶은 황련, 볶은 치자 각 7푼과 소금과 술에 볶은 황백 5푼을 더하여 연달아 3번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기에 이같이 지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임금께 아뢰었다.〉

진시 정각에 세자의 증세가 숨이 막히었다. 소조중탕(小調中湯) 1첩을 올렸다. 승언색이 “약을 올린 뒤에 담화(痰火)가 조금 내려서 잠시 진정된 듯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약을 올린 뒤로 식은땀을 많이 흘려서 두터운 솜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자 하시어 못 의원들은 잠시 나가 있게 하라고 하령하셨으며, 증세 또한 잠시 그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약방이 “세자의 증세가 가볍지 않아서 담화(痰火)가 뜻밖에 올라갈 때가 있으니 급한 일에 대처할 방도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임금께 아

39) 許浚, 『東醫寶鑑』, “凡瘡取間使爲妙”

40) 許浚, 『東醫寶鑑』, 『柴胡知母湯』, “治熱瘡及瘡瘡 柴胡 知母 各一錢半 蒼朮 黃芩 乾葛 陳皮 半夏 川芎 各一錢 甘草炙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梅二 水煎清晨服 午前又一服 久瘡加入參當歸(節齊)”

되었다. 오시 정각에 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여기에 소조중탕(小調中湯)은 모든 담화(痰火)와 모든 괴병(怪病)을 치료하는 약으로 비위(脾胃)를 잘 다스리는데 사용한다.⁴¹⁾ 세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근본으로 돌아가 소조중탕으로 비위를 다스리려는 시도로 보이나, 이미 세자의 음기가 고갈되어 발광증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소조중탕을 쓴다하여도 방향이 다르고 이미 때가 늦었기에 세자는 사망하게 된다.

4. 소현세자의 체질에 대한 견해

사상의학(四象醫學)은 동의보감 이후 체계화된 의학지식과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성학(心性學)이 서로 만난 심신의학(心身醫學)으로 사람의 체질이 4가지로 분류되어 생리 병리 성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학문이다.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신체부위별 기상을 살피는 체형기상론, 용모에서 나오는 기운을 느끼는 용모사기론, 평소 잘 유발되는 행동을 살피는 성질재간론, 평상시의 마음과 욕심부릴 때의 마음을 보는 항심심욕론, 체질별 질병상태의 차이를 이해하는 체질병증론, 체질한약을 사용하고 그 반응을 살피는 약진론 등이 있다.⁴²⁾ 또한 후세 의가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망진법(望診法), 침진법(鍼診法), 체간측정법, 두부촉진법(頭部觸診法), 맥진법 등이 있다.

사상의학에서는 같은 질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른 동병이치(同病異治)의 치료방법과, 질병이 달라도 체질자체의 취약점을 개선시키는 방법인 이병동치(異病同治)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⁴³⁾ 따라서 태양인은 뿜어내는 기운은 강하지만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운이 약하므로 간(肝)을 보강하는 흡취지기

41) 許浚, 『東醫寶鑑』, 『小調中湯』 “治一切痰火 及百般怪病 善調脾胃 神效 黃連煎水浸甘草 甘草煎水浸黃連 瓜蒌仁煎水浸半夏 半夏煎水浸瓜蒌仁 各炒水乾爲度 各等分 右剉五錢 薑三片煎服 又四味爲末 煮良薑取汁 作糊和丸梧子大 白湯下五十丸 尤妙(入門)”

42) 金鍾德 외, 2002 『이제마평전』, 한국방송출판, 342-357면.

43) 예를 들면 변비 설사 복통 하복냉증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변비약 설사약 등을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병증으로 이해하여, 신체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사상체질의학에서는 타고난 명(命)을 보존시키는(保) 보명지주(保命之主)를 위주로 한약을 사용하여야한다고 보고 있다.

(吸聚之氣)를 위주로 하여야 하고, 소양인은 음식물의 기운이 모여서 열이 나기 쉬우므로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음청지기(陰淸之氣)를 위주로 하여야 하고, 태음인은 흡수하는 기운은 강하지만 발산하는 기운이 약하므로 폐(肺)의 기능을 도와주는 호산지기(呼散之氣)를 위주로 하여야 하고, 소음인은 음식물의 기운이 잘 흩어져 몸이 차가워지기 쉬우므로 속을 따뜻하게 하는 양난지기(陽煖之氣)를 위주로 한약이나 음식을 섭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상의학에서는 체질별로 사용하는 한약이 다르듯이 먹는 음식도 다르게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

그러면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소현세자를 어느 체질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세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소현세자를 진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세자일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체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며, 체질처방을 사용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세자의 위치에서 행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자일기에 있는 내용만으로 소현세자의 체질을 분석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역사적 인물을 분석한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자가 현재 생존하지 않는 인물이므로 부득이 세자일기에 기록된 병증을 가지고 접근하는 체질병증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체질처방은 아니지만 체질약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살펴보는 약진론을 사용하였다.

(1) 소양병증은 소양인에게만 나타난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장중경이 분류한 소양병증(少陽病症)은 구고(口苦) 인건(咽乾) 목현(目眩) 이롱(耳聾) 흉협만(胸脇滿) 한열왕래(寒熱往來) 두통(頭痛) 발열(發熱)하며 맥은 현세(弦細)한데, 이는 소양인에게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세자일기에 나타난 세자의 증상 가운데 소양병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640년 7월 18일 <세자가 귀가 아픈 증세가 약간 있다> 귀가 아픈 증상은 어느

44) 예를 들면 따뜻한 성질이 있는 인삼(人蔘)은 몸이 냉한 소음인에게 좋고, 차가운 성질이 있는 보리는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좋고, 발산하는 기운이 있는 소고기는 기운이 멎치기 쉬운 태음인에게 좋고, 수렴하는 기운이 강한 감은 수렴하는 기운이 부족하기 쉬운 태양인에게 좋은 것으로 본다.

체질이 나 있을 수 있으며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단지 세자가 귀가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양병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귀가 아픈 증상은 이롱(耳聾)의 일종이고 소양병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641년 2월 17일 <감기가 들어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기침과 천식이 있다> 전형적인 소양병증의 특징이 보인다. 한열왕래(寒熱往來) 두통(頭痛) 발열(發熱)이 모두 있으며 인건(咽乾)으로 인하여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643년 12월 12일 <오한 때문에 자주 열이 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보아 찬바람 때문에 심한 감기에 걸린 듯하다> 모든 체질이 감기에 걸리면 오한발열이 있을 수 있으나, 눈이 어지러운 목현(目眩)은 소양병증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또한 입이 말라 물을 찾는 것은 인건(咽乾)에 해당될 수 있다.

(2) 소양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처방이 세자에게 효과가 더 좋았다.

세자일기에 처방된 것을 보면 소음인 또는 태음인 약재가 많이 들어간 처방은 효과가 미비한 반면, 소양인 약재가 많이 들어간 처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제분석에 있어서 체질약재가 더 많다고 하여 특정 체질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개연성을 추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1638년 3월 20일 감기기운에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처방하였다. 구미강활탕은 강활 방풍 각 1돈반, 창출 천궁 백지 황금 생지황 각 1돈 2푼, 세신 감초 각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소양인약재인 강활과 방풍이 주된 처방으로 1돈반씩 들어가 있으며 생지황이 1돈 2푼 있다. 세자가 구미강활탕을 복용하고 효과가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처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기가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1639년 6월 13일 세자의 더위 먹고 밥맛을 잃자 유령탕(藳苓湯) 2첩을 처방하였다. 유령탕은 택사 1돈 2푼, 저령 적복령 백출 향유 황련 백편두 후박 각 1돈, 감초 3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양인 약재인 택사, 저령, 적복령, 황련 등이 주된 처방이다. 다음날 세자는 1첩을 복용하였더니 이미 차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1640년 9월 12일 세자의 마목(麻木)증상에 퇴열탕(退熱湯)을 처방하였다. 퇴열탕은 황기 1돈 3푼, 시호 1돈, 생감초 황련 황금 적작약 지골피 생지황 창출 각

7푼, 당귀신 승마 각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호 황련 지골피 생지황 등이 소양인약재이나, 소음인약재인 황기가 주된 약이다. 이 처방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옥후가 미령하여 9월 24일 가입사물탕으로 바꾼다. 가입사물탕은 길경 감초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황백 지모 천화분 등을 달이고 여기에 죽력(竹瀝)을 넣어 복용하는데, 숙지황만이 소양인약재일 뿐이다. 10월 19일 세자에게 감기기운이 조금 있어서 가감충화탕으로 다시 바꾼다. 가감충화탕(加減沖和湯)은 방풍충화탕으로 강활 방풍 각 1돈 반, 백출 천궁 백지 생지황 황금 각 1돈, 세신 감초 각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약인 강활과 방풍이 소양인약재이다. 즉 퇴열탕과 가입사물탕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자 방풍충화탕으로 바꾸어 치료하고 있다.

1641년 2월 9일 설사증세에 사령산(四苓散)을 처방하였다. 사령산은 택사 2돈 반, 적복령 백출 저령 각 1돈 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백출을 제외한 택사 적복령 저령 3가지가 모두 소양인약재이다. 세자는 이를 복용하고 상태가 곧 호전된다.

1641년 2월 17일 세자가 감기에 걸려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기침과 천식이 있는데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을 처방하였다. 또한 1644년 7월 3일 감기에도 인삼패독산이 사용되었다. 인삼패독산은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지각 길경 천궁 적복령 인삼 감초 각 1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적복령 등 5가지가 소양인 약재에 해당된다. 이 처방은 훗날 소양인의 형방패독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소양인의 소양상풍증(小陽傷風症)에 자주 이용되는 처방이다. 다음날 세자는 효험을 많이 보았고 몸이 편안해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세자는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다.

1641년 4월 8일 견갑견인(肩甲牽引)에 강활승습탕(羌活勝濕湯)을 처방하였다. 이 처방은 강활 독활 각 2돈, 고본 방풍 감초 각 1돈, 천궁 만형자 각 5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양인약재인 강활 독활이 주된 약재이고 방풍이 포함되어 있다. 4월 10일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세자가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강활승습탕이 세자에게 잘 맞는 처방임을 알 수 있다.

1641년 11월 17일 우안산병(右眼酸病)에 서각음(犀角飲)에 세폐산(洗肺散)을 같이 처방하였다. 서각음은 서각 2돈, 강활 황금 차전자 각 1돈, 백부자 맥문동 각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강활 차전자 만이 소양인 약재이다. 세폐산은 반하 3돈, 황금 2돈, 천문동 맥문동 오미자 각 1돈 반, 행인 1돈, 감초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양인약재는 1가지도 없다. 서각음과 세폐산을 같이 사용하였

을 때에는 약간 호전되는 듯 아닌 듯 별차도가 없었고, 23일 세폐산만 사용하였을 때에도 효험이 전혀 없었다.

1642년 3월 13일 비위허약(脾胃虛弱)과 오심(惡心)에 육군자탕(六君子湯)을 처방하였다. 육군자탕은 반하 백출 각1돈반, 진피 백복령 인삼 각 1돈, 감초구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양인약재는 백복령 1개뿐이다. 육군자탕은 세자에게 효과가 금방 없었고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1643년 12월 12일 기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오한(惡寒)이 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에 삼소음(參蘇飲)을 처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졌다. 이에 가입인삼강활산(加入人蔘羌活散)으로 처방을 바꾸었다. 삼소음(參蘇飲)은 인삼 자소엽 전호 반하 건갈(乾葛) 적복령 각 1돈, 진피 길경 지각 감초 각 7푼 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호 적복령 2개만이 소양인 약재일 뿐이다. 반면 가입인삼강활산은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지각 길경 인삼 적복령 천궁 감초 각 2돈 천마 지골피 각 1돈 박하 3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적복령 지골피 박하 등이 소양인 약재이다. 다음날 세자는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한 것을 보면 세자에게는 삼소음보다는 인삼강활산이 더 좋은 효과를 본 것이다. 이에 1644년 3월 8일 감기에도 가입인삼강활탕을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본다.

(3) 배를 좋아하는 세자는 최소한 소음인은 아니다.

1638년4월 26일 세자가 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를 구하는 한편 서울로 배를 보내라는 장계를 보낸다. 율화병이 심해져 배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세자는 평소 갈증이 심해 배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는 심열(心熱)을 다스리고 번조(煩燥, 가슴이 답답한 증상)증상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가 좋으며, 소갈로 인한 갈증에 배를 사용한다.⁴⁵⁾ 배는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음인이 오랫동안 상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세자가 소음인일 가능성은 적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세자는 소양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증상이 호전되었고, 소양인약재가 적은 처방을 복용하였을 때에는 효과가 미진하였다. 사용된 처방분석만으로 세자를 소양인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자

45) 金鍾德, 2004, 『사상체질별 식품분류에 관한 연구 - 태음인식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9-108면.

가 소양인일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4) 세자의 체질분석에 대한 의미

옛 인물의 체질을 사상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한의학 특히 사상의학계에서만 문제의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을 사상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예상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제마는 중국역사인물 가운데 태양인으로 공자 황석공(黃石公) 이태백(李太白), 소양인으로 순임금 자사(子思) 당태종(唐太宗) 관중(管仲) 강태공 손무(孫武) 가의(賈誼) 이장길(李長吉) 소식(蘇軾) 유공권(柳公權), 태음인으로 우임금 맹자 유방 범려(范蠡) 사마양저(司馬穰苴) 사마천(司馬遷) 두보(杜甫) 왕희지(王羲之), 소음인으로 요임금 증자 한광무(漢光武, 광무제) 안영(晏嬰) 제갈량(諸葛亮) 오기(吳起) 반고(班固) 왕곡(王谷) 韓退之(韓退之, 한퇴지) 등으로 분류하였다.⁴⁶⁾ 이제마는 과거의 인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글이나 그림 그리고 당시의 행적을 중심으로 그 인물의 사상과 특징을 유추하여 사상체질을 구분하였다.

어떠한 행동을 보고 체질을 구분하였는지에 대하여 초한전의 두 주인공인 유방과 항우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초나라 항우(項羽)와 한나라 유방(劉邦)의 전쟁을 비유하여 장기를 만들었지만, 사상의학에서는 항우를 태양인, 유방을 태음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자랑하는 항우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불의(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영웅호걸의 호탕함도 있지만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이 불만의 기미가 보이자 이십만 명을 생매장하는 결단을 단호하게 내리기도 하였다. 나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는 미친한 병사들의 사소한 불편도 정성껏 돌봐주지만, 마음이 떠나고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싹을 철저히 자르는 비정함의 발로였다. 이는 전쟁포로를 이끌고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덕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냄으로써 천하의 인심을 잃게 된다. 또한 타고난 전투의 맹장인 항우는 작전상 후퇴가 없이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9-4 孔子稟太陽 大禹孟子稟太陰 帝舜子思稟少陽 帝堯曾子稟少陰 漢太祖稟太陰 唐太宗稟少陽 漢光武稟少陰 范蠡稟太陰 管仲稟少陽 晏嬰稟少陰 黃石公稟太陽 司馬穰苴稟太陰 太公孫武稟少陽 諸葛亮吳起稟少陰 李太白稟太陽 司馬遷杜甫稟太陰 賈誼李長吉蘇軾稟少陽 班固王谷韓退之稟少陰 王羲之稟太陰 柳公權稟少陽”

이러한 항우의 행위를 보면 『東醫壽世保元』의 ‘태양인은 항상 전진하려고만 하고 후퇴하려하지 않으며, 항상 수컷같이 행동하고자 하고 암컷같이 행동하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양인이 항상 이기려고만 한다면 방종지심(放縱之心)이 반드시 지나치게 될 것이다.’⁴⁷⁾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항우는 진나라를 멸하고 초패왕(楚霸王)이 된 다음에 거칠게 없고 스스로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 명목상의 군주였던 초나라 회왕인 의제(義帝)를 죽이고 부하들의 논공행상을 독단으로 처리하여 천하의 불만을 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는 방종하는 마음이 지나쳐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한 결과였다.

자존심이 세고 일시적으로 굽히기를 싫어하는 항우는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패한 뒤 강동으로 건너가 뒷날을 기약하라는 말에 웃으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찌 건너갈 수 있겠는가? 내가 강동자제 팔천 명을 데리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왔으나 이제 한사람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비록 강동의 부형(父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을 준다 하여도 내가 어떤 면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이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거절하고 자결한다. 만약 항우가 분노심을 억누르고 오강(烏江)을 건넜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東醫壽世保元』에 ‘태양인은 항상 급박한 마음이 있으니 일보 후퇴하여 급박한 마음을 항상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야 건강해진다.’⁴⁸⁾라고 하였다. 태양인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여도 마음을 차분하게 더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자신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항우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귀족출신의 항우에 비하여 미천한 신분출신의 유방은 타협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어느 때는 비굴할 정도로 굽혔다가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냉혹함을 보이고 있다.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직선적인 태양인 항우에 비하여 태음인 유방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시세가 불리하면 때를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심을 갖추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보다 나이는 적지만 힘이 강한 항우를 의형으로 모셔 항우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힘이 커지자 곧 항우에게 도전한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치열한 전쟁을

4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太陽之情氣 恒欲爲雄 而不欲爲雌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 則放縱之心 必過也.”

4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 寧靜 則肝血卽和也. 太陽人 退一步 而恒寧靜急迫之心.”

치루고 홍구(鴻溝)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는 협약을 맺지만, 시세의 흐름에 맞추어 유방은 약속을 무시하고 항우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침략하는 이중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중원통일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인(大人)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방은 항우가 자신의 부친을 삶아죽이겠다고 하자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태연히 그 국 한 사발을 나누어 달라고 천연덕스럽게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친을 구하게 되었다.

유방은 독선적이고 힘을 자랑하는 항우와는 달리 항상 현사를 잘 규합하고 온건한 정책을 펼쳐 가는 곳 마다 인덕(仁德)으로 대하니 유능한 인재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이에 유방은 유능한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여 천하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황제가 된 유방이 천하를 얻게 된 이유를 신하들에게 묻자 답변하기를 ‘폐하께서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것은 있지만 공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천하와 함께 이익을 공동으로 하였기에 황제가 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음인은 홀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여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태음인은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들어 내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때를 기다리며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큰 목표를 향해 간단없는 전진을 하면서 이득을 공유한다. 미천한 신분에서 출발하였지만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을 보면, 『東醫壽世保元』의 ‘태음인의 성질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성취에 장점이 있다.’⁴⁹⁾라는 구절과 부합된다.

이와 같이 태양인과 태음인의 극단적인 행동을 항우와 유방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체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역사적 인물의 체질을 안다면 그 사람의 행동방식과 대처방법을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소현세자를 소양인으로 추정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소현세자가 어떠한 마음에서 행동을 하였는지 유추가 가능하다. 세자는 북경에서 선교사인 아담 샬(Adam Schall, 1591~1666)과 접촉하고 천주교와 서양의 과학사상을 받아들였다. 당시로서는 해외에서 서양적인 학문을 처음 접한 조선인인 셈인데, 새로운 것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소양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라 추정된다.

소현세자는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인 대사역할

4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 而材幹 能於居處”

을 하였다. 세자는 청나라와의 문제는 매우 잘 처리하였으나, 정작 국내 조정과의 관계는 잘 처리하지 못하여 서로 반목이 생기게 된다. 즉 『東醫壽世保元』에 ‘소양인은 사무(事務)를 중시하여 밖의 일을 중시하나 정작 안을 지키는 거처(居處)는 소홀하게 되어 모함을 받게 되니 이는 밖을 중시하고 안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⁵⁰⁾라는 말과 같이 세자는 밖의 일인 외교는 능했으나 안의 일인 조정과의 일을 소홀히 한다. 만약 소현세자가 태음인이나 소음인이었다면 부왕의 간병을 위해 1640년과 1644년 일시 귀국하였을 때 조정과의 불화를 해결하고 자신의 정치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세자가 불모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였을 때 냉랭한 부왕의 태도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슬픔에 잠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몸이 허약해진 것이 주된 원인이겠으나 심리적인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東醫壽世保元』에 ‘소양인이 분노가 극에 달해 이를 이기지 못하면 슬픔이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칼로 장부를 찢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 번 크게 움직이면 10년간 회복하지 못하니, 이는 죽고 사는 관건이 된다.’⁵¹⁾라고 하여 소양인의 분노와 슬픔을 경계하고 있듯이 세자는 울화병에 시달리게 된다.

세자는 인정에 이끌려 불쌍한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였다. 아랫사람들이 거처하기 힘들었던 심양관소를 여러 번 개축한 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옥에 잡혔을 때 음식을 보내거나 의관을 보내어 치료하게 한 일 등은 인정 많은 소양인의 행동으로 보인다.

둘째,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을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치료의 장단점이 보인다.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세자의 한열왕래를 확실히 알고 치료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소양인의 한열왕래는 확실히 치료하면 사망한다는 것을 사상의학 입장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세자의 음식기호를 추정할 수 있다. 세자라는 위치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5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重於事務 故恒有出外 興事務之哀心 此心 出於秉彜之敬心也 莫非至善 而不謹於居處 故每爲主內 做居處人所陷 而偏哀傷臟 以其重外 而輕內故也.”

5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怒極不勝 則悲哀動中 (중략)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계약도 있지만, 체질속성상 음식의 기호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자일기에 세자가 즐겨 먹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열을 내리는 시원한 음식을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자가 배를 좋아했다는 것은 이를 시사한다.

5. 결론

비운의 왕자 소현세자는 삼전도의 치욕을 목도하고 인질로 청나라에 가게 된다. 세자는 26세부터 33세까지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3달도 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어 독살설 등이 난무하게 된다. 이에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에 기록된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1)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끌려간 이후의 고초로 산증이 발생하였으며, 침구치료와 약물치료로 일정부분 회복되었으나, 완치된 상태는 아니었다. 세자를 담당했던 당시의 의원은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준하여 침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였다. 세자의 산증은 분노와 화기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기에 접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세자는 결흉증과 음허오열로 고생을 하지만 학질로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양인 소양병증인 두통(頭痛) 발열(發熱) 한열 왕래 오한 등에 일반적인 감기치료로 땀을 내게 하면 발광섬어(發狂譫語)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열병이나 전광(癲狂)으로 보아 학질치료를 계속하면 음기가 더욱 허해져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세자가 바로 이에 해당된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한 세자가 갑자기 독살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은 세자일기에 나타난 증상과 치료과정에서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

(3)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은 말라리아를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이다. 고열과 주기적인 한열왕래(한열발작) 증상이 있으면 학질로 진단하지만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세자의 증상을 보고 학질로 파악한 것은 당시의 한의학 기준으로 본 것일 뿐으로 말라리아모기에 의한 것은 아니다.

(4) 일기에 기록된 병증과 치료과정을 보면, 소현세자는 소양인으로 추정된다. 세자의 소양병증은 소양인 특유의 질환이며, 소양인약재가 주된 처방은 세자에게 효과가 좋지만 소양인약재가 적거나 없는 처방은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세

자는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楊繼洲, 『鍼灸大成』.

李景華, 『廣濟秘笈』.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許浚, 『東醫寶鑑』.

金鍾德 외, 2002, 『이제마평전』, 한국방송출판.

金鍾德, 2004, 『사상체질별 식품분류에 관한 연구 - 태음인식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朴鎬京, 1991, 『東亞骨系學』, 동양의학연구원.

Abstract**The Research for the Prince Sohyeon's Symptoms of Illness and Treatment**

Kim, Jong-Dug

It has mainly been told that Prince Sohyeon (1612~1645) was poisoned to death, who had just come back to Chosun from Cheong Empire suffering from being held hostage for about 8 years. However, observing his symptoms of illness and the process of treatments for them presented in *Simyang Diary* and *Eulyudongkung Diary*, the medical treatments were mostly based on *Donguibogam* (1613). He was suffering from the symptom of San continually, which was caused by contact of coldness while having Hwa illness. Also, He was thought to be Soyangin in the view of Sasang-Chejil medicine. He was having the symptoms of Kyeolhyung, Eumheo-oyel, and Hanyel-wangrae, not of Hakjil that he was treated for, which caused the Prince Sohyeon to die.

Keywords: the Prince Sohyeon, *Simyang Diary*, *Eulyudongkung Diary*, the symptom of San, the symptom of Hakjil, Soyangin, *Doneuibogam*, Sasang-Chejil medicine